



서울大同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1년 4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7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제33회 정기총회에서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좌로부터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의대동창회장, 金在淳회장, 金丁龍(영광부문) 동문, 孫吉丞(협력부문) 부회장, 林光洙(참여부문) 수석부회장, 李基俊총장, 洪性大부회장) <커버스토리 4~6면>

제3회 관악대상 수상자...뜨거운 박수를!



작년 서울대학교 졸업식의 축사에서 金大中대통령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서울대 교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서울대 출신임을 잊어야 한다는 요지의 당부를 했

다.

그 정신은 물론 서울대 출신들이 일종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겸허하게 실력과 능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 졸업생은 자신이 서울대 출신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어느 다른 대학의 구성원보다 특별한 혜택을 누려 온 일종의 선택된 자이며,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는

「Noblesse Oblige」정신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관악대상 수상자들은 서울대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상자들 중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진솔한 반성이 필요할 때

을 다해 오면서 국민 건강에 결과적으로 큰 공헌을 한 동문도 있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분들도 있다. 모교에 대한 후원은 서울대의 위상에 맞는 우수한 후배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사회 기여 못지 않게 소중한 일이다.

요즘 서울대는 한겨울의 추위를 맞고 있다. 밖의 시

선도 끊지 않고, 안의 사람들도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그 원인의 진단은 다양하겠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팎의 서울대인 모두의 진솔한 반성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밖의 동문들도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엄격하고도 공정한 비판과 아울러 지혜를 보태주는 것이 그 첫째일 것이다.

그 다음은 따뜻한 격려와 지원이다. 여기에는 후배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의 사람들이 소신 있게,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풍으로부터 바람막이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추운 때이기에 이번 수상자들 같은 동문들의 격려가 더욱 소중한고 아쉽게 생각된다. (珍)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느티나무광장

중국 南宋 초, 어떤 황제가 科擧 급제자들을 불러보았다.

그 중에 백발 노인이 있어서 그 중에 백발 노인이 있어서 물을으니, 나이 73세, 평생 시험공부를 하느라 장가도 못 들었다고 했다. 황제는 궁녀 중에서 미인을 골라 그와 짝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이런 노래가 나왔다.

『신부가 신랑 나이를 묻거든, 50년 전 23이라 하계』

新人若問郎年幾
五十年前二十三

또 이런 詩도 남아 있다.

달구지 여러 바리 책을 읽고, 늙어서 겨우 벼슬을 얻었네.

아가씨가 내 나이를 묻거든, 50년 전 23이라 하리.

讀盡詩經五之擔
老來方得一青衫
佳人問我年多少
五十年前二十三

이 고사성어가 새삼 생각난 것은, 일전 몇몇 동기들과의 모임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들 모교 입학 50주년이 된 다, 무언가 뜻 있는 기념행사를

50년 전 23



金昌悅
칼럼니스트

를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냈고 모두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 때 떠올린 것이 「50년 전」 그리고 「23」이었다.

우연찮게도 「23」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의 나이이다.

그러니까 입학 50년을 자축하고 4년을 지나면, 나도 「50년 전 23」을 읊조려야 할 처지가 아닌가. 얼핏 덧없다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우리의 「50년 전 23」이 그런 감회만으로 맛을 시간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自嘲아닌 自照의 계기가 되어야 옳다.

그래서 요즘 종종 「23년 이후 50」을 생각한다. 모교 교문을 나서던 때의 초발심을 되새긴다. 그때 다짐에 얼마나 충실했던가. 그 다짐을 얼마나 성취했던가.

이 물음 앞의 聯想은 반쯤 찬 물컵이다. 컵을 채우노라고는 했으나, 다 채우지는 못했

다. 이제라도 그 나머지를 채우자면... 조급함이 없이, 그래도 할 일은 다했으면 한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소프트웨어 강국 2005년을 향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은 2005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3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달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은 부가가치율이 40%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 기여도는 물론이고, 제조·금융·유통 등 타 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등, 국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21세기 첨단 유망 산업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자국의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할 중장기 계획인 「소프트웨어 강국 2005」를 수립하고, 오는 2005년에 소프트웨어 수출 30억 달러 달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강점,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강구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양성된 풍부한 고급인력을 소프트웨어 및 IT산업 인력으로 활용하고,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공해온 수출 지향적 경험을 소프트웨어 수출진흥에 지혜롭게 응용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국가적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 이를 토대로 한 왕성한 벤처 창업 의욕도 우리의 커다

란 강점으로 들 수 있겠다.

반면 그 약점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 전략이 부족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력이 취약한 데 비해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 및 품질 수준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고객·경쟁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과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R&D를 토대로 틈새시장(niche market)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고객과의 연결고리인 마켓 채널(market channel)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은 2005년까지 소프트웨어 선진국 수준인 세계 7위 권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강국 2005」의 목표 달성은 산업계의 글로벌 벤처정신, 학계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정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의지가 조화와 시너지(synergy)를 이뤄야 가능할 것이다.

李檀珩

(71년 工大卒)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주요목차

서울대 가족3면
한국과학기술원 朴善遠교수
특별기고(서울대와 동창회 회장)7면
예술원 白文基회원
건강을 지킵시다8면
서울중앙병원 尹英姬안과과장
추억의 창8면
李德煥 前고령여고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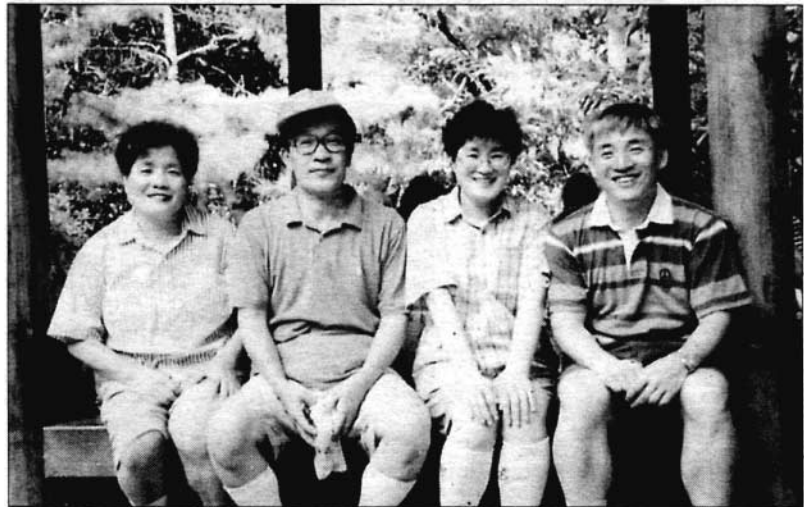
동문을 찾아서9면
서울디지털대학교 曹圭香총장
화제의 동문10면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李勝煒사장
모교소식13~15면
2001학년도 입학식·정년퇴임교수 프로필
SNUA OPINION LEADER18면
서울대 수의대 黃禹錫교수



한국과학기술원 朴善遠교수

부인·처형·동서·매제·조카 등 9명이 동문

“산악모임 통해 가족의 단결을 확인하지요”



(사진좌)좌로부터 盧永仁·柳時迎·盧永奚·朴善遠동문. (사진右)뒷줄 盧倫子·盧永壬·盧永仁동문. 앞줄 좌로부터 첫 번째 盧永奚동문, 李知勳동문(안고 있는 아기).

『강의 및 연구시간 외에는 항상 같이 있을 사람들이 캠퍼스 안에서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데이트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변의 질투 어린 시선과 함께 항상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중 하나이다.

이렇듯 못 사람들의 질투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부부교수가 바로 朴善遠(70년 工大卒·KAIST 화학공학과 교수·신기술창업지원단장)·盧永奚(72년 音大卒·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동문.

그러나 이들 동문 내외가 처음부터 같은 곳에서, 그것도 교수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朴동문이 盧동문을 처음 만난 것은 모교 산악모임에서이다.

『당시 모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아내 내는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한겨울 산악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우연찮게도 제 친구가 바로 아내동기의 사촌오빠였다』며 『그 친구는 극구 나와 같이 갈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산악모임

에 따라가게 됐고, 모임에 가보니 여학생들 가운데 성격이 가장 활발했던 아내가 눈에 띄면서 자연스레 커플이 되었다』고 朴동문은 말했다.

73년 5월에 결혼한 朴동문 내외는 함께 박사코스를 밟기 위해 같은 해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후 박사 학위를 취득한 朴동문은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지만, 부인 盧동문은 공부 외에 자녀 셋을 키워야 하는 이중생활로 다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다행히 한국에서 朴동문의 모친이 미국으로 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盧동문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朴동문은 당시를 생각하면 부모의 내리사랑을 다시 한번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고.

85년 朴동문은 MBA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미국생활에 흠뻑 젖어있었지만, 盧동문은 외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때마침 모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오자 盧동문은 한국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국행 선택과 함께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부부가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년을 서로를 그리며 생활해오다 하늘의 뜻이었는지, 朴동문 또한 KAIST에 자리가 생겼으니 오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이다. 모든 것에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朴동문은 과감히 미국생활을 정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함께 살게 된 것도 잠시뿐. 몇 년 뒤 KAIST가 대전으로 옮겨지면서 朴동문 가족은 또 다시 떨어져 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던 94년의 어느 날, KAIST에서 음악사를 강의하던 교수가 병환으로 그만두면서 盧동문에게 구원(?)의 손길이 온 것이다. KAIST에 음악, 예술, 인문사회 분야를 갈망하는 과학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盧동문은 주저 없이 KAIST의 교수직을 택했다고 한다.

이렇듯 朴동문 내외가 학문에 대한 열정을 쉬지 않고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친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다고 朴동문은 말한다.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교육에 대한 恨(?)을 품고 계시던 朴동문의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에는 언제나 적극적이셨다고. 그 결과 가족 중 매제 李英基(75년 法大卒·부산대 농경제학부 교수)동문 등 4명이 교수로 재직하는 등 7남매 모두 현재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반면 부인 盧永奚동문 가족에선 잊지 못할 아픔이 하나 있다. 6·25전쟁 중 검사를 하던 부친이 그만 납북되면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홀로 딸 넷을 키우던 盧동문의 모친은 항상 딸들에게 『공부를 계속 하려면 학비가 싼 서울대를 가든지, 아니면 엄두도 내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 바람에 네 자매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교를 선택, 모두 한번에 척척 들어갔다고.

특히 盧동문의 모친은 아들이 없어 딸이라도 훌륭히 키우겠다는 욕심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한껏 살려주는데 노력했다. 그 결과 차분하고 가정적인 첫째 盧倫子(67년 家政大卒)동문은 가정교사로, 항상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의 둘째 盧永仁(68년 文理大卒)동문은 프로듀서로, 가장 학업성적이 뛰어났던 셋째 盧永壬(72년 藥大卒)동문은 약사로, 피아노를 좋아했던 盧永奚동문은 음악을 전공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서울대 동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朴善遠동문이 친구로 인해 부인 盧永奚동문을 만났듯, 첫째 동서 韓濟祥(65년 工大卒·盧倫子동문의 남편)동문과 둘째 동서 柳時迎(67년 商大卒·2기 AIP·盧永仁동문의 남편)동문 역시 친한 선배배였던 관계로 모두 盧씨 집안의 사위가 된 특별한 경우이며, 盧永壬동문의 장남 李知勳(98년 自然大卒)동문도 현재 박사과정 준비에 여념이 없다.

산악모임에서 맺어진 朴동문 내외는 지금도 꾸준히 산을 오르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부인 盧동문의 언니, 동생도 모두 山마니아로 통한다. 대전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모였다 하면 무조건 산에서 가족행사를 여는 것이 관행이었을 정도.

(表)

2001년도 정기총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들과 점다운 인사를 나눴다.



趙完圭 前총장의 신입회원 환영사, 朴智永동문의 답사.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가 즐거운 마음으로 건배를 했다.



2000년도 동창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金在淳회장의 인사말씀.



李基俊총장의 인사말씀.



金相慶고문의 건배제의.



朴英俊감사의 동창회 감사보고.



공대동창회를 대표해 林光洙회장(右)에게 참여상 수여.



SK그룹 孫吉丞회장(右)에게 협력상 수여.



한국간연구재단 金丁龍박사(右)에게 영광상 수여.



모교 OB합창단이 「Fide the Chariot」를 선보였다.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꽃살풀이 북춤」 선사.



모교 사회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흥겨운 길놀이.

미술작품



「내 영혼의 피난처」, 한지에 수묵채색, 80×80cm, 2000.

邊榮惠作

〈작가약력〉

- △82년 모교 미대 회화와 졸업
- △85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90년 제1회 그룹인강전
- △91년 제1회 형·색·인전
- △93~2001년 개인전 6회
- △93년 우즈베크공화국 독립기념 한국작가 초대전
- △94년 사천성장 초청 한국작가 초대전, 뉴욕 Cast Iron 갤러리 초대전
- △97년 터키대사관 초청 한·터키전
- △2000년 「Eco-feminism in Korea」 제1회 서울미술협회 회원전
- △2001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전
- △현재 협성대 미술학과 겸임교수, 롯데 MBC문화센터 강사

관악대상에 공대동창회·孫吉丞동문·金丁龍동문

제33회 정기총회서 시상...4백여 동문 축하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3월 16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01년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相慶교문,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徐廷和·李吉女·鄭宗澤·洪性大 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尹天柱·權舜赫·趙完圭 전임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 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및 동문 4백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세기가 물리화학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세기가 될 것』이라며 『인류역사의 매우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동문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서울 大人다운 자랑스런 인생 길을 걸어가자』고 역설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모교는 앞으로 더욱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입학제도를 개선, 고교교육이 그대로 대학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국, 일본, 베트남의 대학과 교류를 강화해 동아시아 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趙完圭전임총장은 신입회원 환영사에서 『모교 교수들의 부단한 연구와 양질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모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곤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졸업한 신입 회원들이지만 모교의 영광을 위해, 선배들의 위업을 계속 계승하는 건실한 후배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한 朴智永동문은 답사를 통해 『앞만을 보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질주해 나가는 서울대인이 아니라, 어우러짐을 통해 조국과 민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게 자신의 위치와 직분에서 성심성의껏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선배님들이 일구어 놓으신 위업을 땀땀이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만찬에 앞서 金相慶교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동문들이 각자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리 나라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말하고 건배제의를 했다.

만찬 중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본회와 재단법인 관악회의 예·결산 요약 및 업무보고를 프리젠테이션 했다. 이어 안건심의를 통해 2000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했으며 朴英俊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 부문에 공과대학 동창회(대표 林光洙회장), 협력 부문에 SK그룹

孫吉丞(63년 商大卒)회장, 영광 부문에 한국간연구재단 金丁龍(66년 醫大卒)이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소감 및 프로필 6면 참조)

본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지난 1월말까지 2개 단체·32명의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시상식에 이어 축하공연에서 모교 OB합창단이 「Ride the Chariot」를 선보였으며, 모교 사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李愛珠(69년 師大卒·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예능보유자)교수가 기획한 「꽃살풀이 북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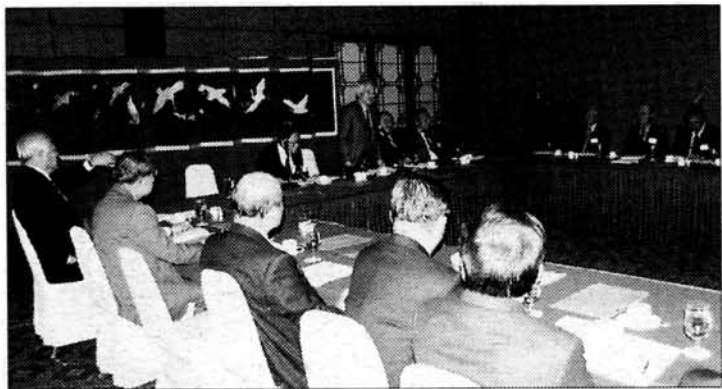
선사해 참석한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모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흥겨운 길놀이를 끝으로 정기총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두리비전(사장 李琪鍾·43기 AMP·13기 AIP)의 기술진이 행사 중계와 영상물 상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신포니에타 단원들이 흥겨운 음악을 선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 동창회 로고를 새겨 제작한 기념품(2중머그컵)을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상임이사회

「해양정책 최고과정」 준회원 영입



본회는 지난 3월 16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A홀에서 동창회 제141차·관악회 제8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 200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재단법인 관악회 2000년 결산을 심의, 의결했으며 동창회 2000년 결산을 심의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동창회 회칙 제5조 제2호(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중퇴자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에 의거, 자연과학대학 해양정책 최고과정(AMPP) 수료자의 영입을 승인했다.

해양정책 최고과정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1기 수료식에서 31명이 배출됐으며, 현재 현대미포조선 南正明교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變)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지난 3월 1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1개 단체와 2명의 동문에 대한 공적사항과 수상소감을 소개한다.

참여 부문 공과대학 동창회

공과대학 동창회는 1965년 창립된 이래 모교 공과대학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서울공대」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동문들의 정보교환, 친선 및 모교 사랑 참여에 일조해왔다.

또한 동문의 회비 중 매년 3천만원을 모교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더불어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기금 71억6천만원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펼쳐 공과대학 발전의 견인차로서 공대인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4만3천여 명의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한 가운데 49억원의 기금을 마련,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엔지니어하우스」를 건립하는 등 산학연의 활발한 교류의 장과 면학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닦았다.

엔지니어하우스는 23개 단과대학(원) 동창회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된 동창회관으로서 그 내부에는 공대 동창회·AIP 동창회 사무실, 각 학부(과) 동창회 사무실, 음악감상과 학술대회를 위한 대형강당, 중식당, 산학 강의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98년 제12대 동창회장에 취임한 林光洙(52년工大卒·임광토건 회장)회장은



은 이날 공과대학 동창회를 대표하여 관악대상을 수상한 후 「공대동창회는 우리 나라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력해왔으며, 공대인의 열정과 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에 많은 기금을 출연하는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대인의 학문과 인격의 토양이며, 원대한 꿈을 심어준 마음의 고향인 서울대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뿌리 깊고, 빛나는 나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뿌리 깊은 나무인 모교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 계속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협력 부문 SK그룹 孫吉丞회장

1963년 상과대학 상학과를 졸업한 孫吉丞동문은 선경합섬 부사장, 선경그룹 사장, 유공해운 사장 등을 거쳐 1998년 SK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SK해운·SK유통·SK텔레콤 대표이사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경제정책위원장, 모교 분당병원 발전후원회 이사, 한국기업매세나협의 회장 등을 겸임하면서 모범적인 경영인의 자세를 확립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모교인 서울대에 SK경영관(1990년), 호암게스트하우스(1996년),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2000년)와 더불어 SK텔레콤연구소(2002년 준공예정) 조성사업 등에 커다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모교의 발전 비전과 경쟁력 확보의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날 孫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국가발전은 물론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대인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 상을 받고 보니 영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하고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기업계 동문들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받겠다」고 덧붙였다.

孫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Globalization은 결국 또 하나의 세계 대전이고, 이 전쟁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며, 21세기 무한경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창의,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능력」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반세기 동안 모교와 동문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고 변화를 선도해 왔다면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인류복지에 기여하고 국가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등 보다 더 큰 사명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을 의미하듯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영광 부문 한국간연구재단 金丁龍이사장

肝분야 전문의로서 한국간연구재단과 모교 의대 간연구소를 몸소 설립, 운영하면서 국민 의료 증진에 지대하게 공헌해온 金丁龍박사는 1959년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 의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2000년 정년퇴임시까지 한국간연구회장, 아시아태평양소화기병학회 회장, 대한내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3천5백여 명의 후학들을 길러냈으며, 2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인도주의 의료인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한국인에게 많은 간질환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원인임을 밝혀내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혈청에서 분리, 이와 연관된 급만성 간염과 간경변증 및 원발성 간암의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이를 실용화함으로써 국내 B형 간염 有病率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1980년부터 새로운 간염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 수십만 예의 임상검체를 대상으로 면역침전법을 시행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분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감염자에게 새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한국의 의학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金박사는 수상소감에서 「관악대상 수상은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말한 뒤 「최근 의학분야의 발달이 매일매일 변화를 거듭하여 좋은 치료약이 등장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예방 백신을 개발하여, 취학전 아동의 B형 간염 보유율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추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피력했다.

金박사는 韓貞愛(63년 醫大卒)여사와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특별기고

모교 휘장은 영원한 것, 바꾸면 안된다

張 勳 미대학장이 도안...“재학생과 동문 모두의 것”

지난 3월초 국내 각 일간지에 모교의 휘장이 바뀌었다는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서울대인의 가슴속에 안겨 있는 휘장을 교체한다는 소식은 동문 사회에 크나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기회에 필자가 알고 있는 모교와 동창회 휘장의 역사를 피력하고자 한다.

1946년 미술대학 張 勳학장께서 모교의 휘장을 구상하신 그 당시는 시대적 상황이 좌우익의 대립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 지속됐으며, 대학이 본연의 학문 탐구에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미군정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따라 흩어져 있던 현재의 모교 전신 대학들이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뭉쳤으며, 서울대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단일된 휘장이 필요한 때였다.

그 해가 저물어갈 무렵, 張 勳학장은 圖案科 학생 李基勳군을 불러 약간의 설명과 함께 모교 휘장을 하나 도안해 오라고 했다. 李基勳군은 옛날 로마의 國章의 테두리 장식모양으로 되어있는 月桂의 잎을 양쪽으로 둥글게 연결한 것으로 그 테두리를 잡았다.



모교 휘장

그리고 그 안의 상부에 외국에서 紋章을 새겨 넣는 방패를 놓고 국립서울대학교라는 뜻의 ㅊ, ㅍ, ㅊ字(국립 서울 대학교의 초성자)를 배합한 휘장을 새겼다. 또 그 밑에 펼쳐진 책을 놓고 공부하는 전당을 상징하면서 VERITAS LUX MEA라는 라틴어(羅典語)를 써놓았다.

많은 학문의 원전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그 원전적 뜻을 상징하기 위해 라

족의 앞날을 밝힌다는 뜻의 횃불이 교차되어 오늘날과 같은 휘장이 탄생했다.

그후 테두리 장식의 月桂葉은 우리 나라의 개나리잎 모양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1975년에 정식으로 변경 채택됐다고 모교 측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동창회 휘장은 그것을 그대로 둔 채 다만 책 속의 라틴어로 써넣은 것을 없애고 한글로 진리(眞理)라고 써넣

모교 휘장

「VERITAS LUX MEA」로 세계화 지향

동창회 휘장

반딧불 문양으로 15개 단과대학 상징

틴어를 사용하였고, 또 최근에 떠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아류라는 뜻이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으로 가자는 뜻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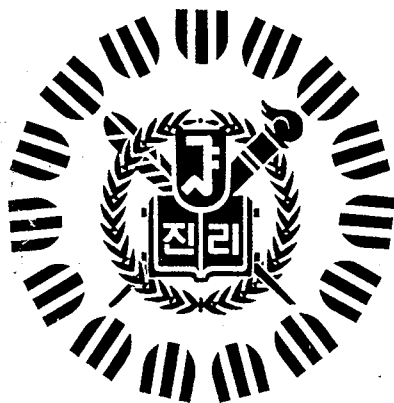
아무튼 그렇게하여 月桂葉 장식 속에 방패와 책이 들어가는 했으나 왜 그런지 그것만으로는 허전한 기분이 들었던지 그 바탕에 공부를 상징하는 펜과 민

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 바탕의 둥근 가장자리에는 당시 모교의 15개 단과대학을 상징하는 모양을 넣고, 이것이 동창회 휘장이니 만큼 螢雪의 功을 쌓아 졸업했다는 표시로 반딧불의 두 줄기를 넣어 문양을 가볍게 하면서 온 사회를 빛낸다는 뜻을 주었다.

당시 동창회 휘장 도안에 참여한 본인과 미술대학 金敎滿교수는 휘장의 구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기획했었다. 휘장은 사회적 존재를 직접적이고 감성적으로 전달시키는 시각언어임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형체로서 내용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 동창회의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의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으로서 시각화 되도록 했다. 모교의 휘장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이 배열돼 동문 상호 협력을 상징하며, 그 협력이 국가발전에 참여하여 사회의 빛이 될 것을 상징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대 무용론, 나아가서는 서울



동창회 휘장



白文基 (50년 美大卒)
예술원 회원

대 폐교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회 일각의 우려 속에서 55년간 지성의 요람으로, 한국사회의 기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모교의 상징을 바꾸는 것은 서울대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며, 서울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대학은 대학 본연의 자체인 학문 탐구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이 결집하여 하나의 역사성과 전통성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교를 거쳐간 많은 동문들과 그 동문들이 이 나라, 이 사회에 헌신한 많은 시간들 또한 모교가 국내 제1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모교의 휘장 또한 서울대학교 역사의 한 구성체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믿고 있다. 서울대의 상징인 휘장은 재학생만의 것이 아니고 전 동문의 것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모교의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하는 동문들의 애교심을 모교 측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휘장 교체로 인한 더 이상의 파장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사가 55년이나 되었고, 국내외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휘장을 꼭 바꿔야 서울대가 훌륭한 대학이 되는가. 모름지기 휘장이나 로고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어도 학교나 회사가 잘 되면 유명해지고 돋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잘못되는 곳일수록 휘장이나 로고 타령을 한다는 데 있다.

건강을 지킵시다

당뇨망막병증이 시력 상실 초래하기도

최근 20~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한국인의 질병양상도 많이 달라져 1980년 후반부터는 당뇨병이 입원 환자의 10대 질환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당뇨신장병증, 당뇨신경병증과 함께 당뇨병의 3대 만성 합병증으로, 선진국에서는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시력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 및 심한 정도는 당뇨병 유병기간과 비례하며, 전체적으로는 유병기간 5년 이하에서 29%, 15년 이상에서는 78%나 발견되며, 그 중 심각한 단계인 증식 당뇨망막병증은 5년 이하에서 2%, 15년 이상에서는 16%정도 발견된다. 유병기간 외에 만성고혈당증, 고혈압, 임신, 사춘기, 신장질환, 고지혈증이 당뇨망막병증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당뇨를 오래 앓으면 망막모세혈관이 광범위하게 폐쇄되면서 허혈상태가 되며, 심한 망막부종을 일으키거나 신생혈관증식을 일으켜 출혈을 가져온다. 이 출혈이 심해지면 안구 내 유리체강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앞이 안보이게 되거나 증식성 견인막의 수축에 의한 망막박리현상을 일으켜 심각한 시력상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당뇨망막병증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할 때까지는 시력감소 등의 자각적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당뇨병을 진단 받은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치료로는 우선 장기적으로 혈당을 꾸준히, 그리고 적절히 조절하



尹英姬(81년 醫大卒)
서울중앙병원 안과 과장

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현재로서 가장 표준적인 치료법은 레이저광응고치료이다. 이는 당뇨망막병증이 증식성 단계에 가까워져 출혈위험이 크거나 심한 황반부종으로 중심시력감소가 심할 때 시행하게 된다. 특히 이 레이저 치료는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추적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레이저 치료시기를 놓쳤거나 경우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도 망막병증이 계속 진행되어 말기 현상인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가 되면 유리체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 20년 전 만해도 일단 수술을 요하는 단계가 되면 유용한 정도의 시력회복을 성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나, 점차 혁신적인 수술장비와 수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에는 70~80%까지 회복률이 상승되었다.

결론적으로 성인 제1의 시력소실 원인인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시력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망막 전문의에게 레이저 치료나 유리체 절제술을 받는 것이 좋다.

추억의窓

부산 대신동 가교사서 입시 치러 육군 대위가 「지도학」 직접 강의

李德煥(57년 師大卒)前고령여고 교장

우리는 6·25戰爭 중 臨時首都 釜山에 내려와 있던 서울대학교 師範大學에 入學했는데, 그 다음해인 7月 休戰이 成立됨으로써 釜山에서 서울 本校로 復歸하게 되었다.

그때가 1953年 9月. 당시 우리는 2學年生으로 서울 本校에서 學業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학기초 어느 날 地圖學이란 科目의 첫 講義를 듣기 위해 講義室에서 教授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始作鐘이 울리자마자 陸軍大尉 階級の軍帽에다 將校服裝 차림의 現役軍人이 講義室에 들어와 교단에 서더니 曰. 『名은 洪始煥, 階級은 陸軍大尉, 現職은 陸軍士官學校 教授이며, 陸士에서는 軍事 作戰術과 地圖學을 강의하고 있는데 師範大學의 要請에 의하여 이번 學期부터 師大 地理科에서 地圖學 講義를 맡게 되었다』는 紹介를 하면서 곧 講義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우리는 等高線 稜線, 地形·地物이 용법, 進退方向, 渡河作戰의 條件 등 地圖學을 재미있게 배우면서 隣近 山野와 江江에 나가 踏査도 하는 등 野外實習을 했는데, 그때 찍은 한 장의 寫眞이 50년이 지난 빛 바랜 寫眞이다.

이 寫眞을 촬영한 곳은 靑年里로, 당시는 한적한 農村 근처의 낮은

野山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西大門에서 하루에 4~5회 運行되는 定期버스를 利用, 獨立門을 지나 鴻池洞 고개를 넘어 허허벌판인 비포장 道路를 한시간여 달려야 靑年里에 到着할 수 있었다.

지금은 靑年里가 은평구의 中心都市가 되어 옛날의 그 모습은 想像조차 不可能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天地開闢이라 할까, 桑田碧海라고나 할까?

그 당시 指導教授였던 洪始煥 教授님은 體軀는 작으나 당당하셨고, 言과 行을 強調하는 外柔內剛의 姿稟이었는데 내내 健勝하시길 祈願하며, 같이 同行한 李智皓 教授님은 한평생 師範大學에서 많은 弟子를 길러낸 元老教授로서, 말수는 적으나 깊은 情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몇 해 전 作故하셨으니 삼가 冥福을 奉祈願드린다.

그리고 이 寫眞을 찍은 우리들은 韓國戰爭, 즉 北韓과 中共軍 對 韓國軍과 UN16個國이 參戰하여 밀고 밀리는 未曾有의 戰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戰時體制의 釜山 大新洞 假校舍에서 入試를 치르고 大學 1年을 釜山에서 마쳤다. 還都後 서울 本校에서 3年間の 課程을 마치고 20여 명이 卒業을 하게 됐는데, 歲月은 빠르기도 하여 이제 모두 古稀를 넘었으니 부디 健康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問安을 이 빛 바랜 寫眞이라도 실어 보낸다.



야외실습 나온 동기들과 함께

2000년도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3,320,366,985)	부채	(116,039,109)
1. 유동자산	(3,306,498,926)	1. 유동부채	(91,650,939)
(1) 당좌자산	(3,306,498,926)	1) 예수금	10,308,549
1) 현금과 예금	3,215,697,038	2) 미지급금	40,098,390
2) 미수금	27,200,000	3) 외상매입금	0
3) 미수수익	13,865,508	4) 선수수익	41,244,000
4) 받을 어음	700,000	2. 고정부채	(24,388,170)
5) 유가증권	6,448,500	1) 수입보충금	2,500,000
6) 제세선납금	42,587,880	2) 퇴직급여충당금	21,888,170
		자본	(3,204,327,876)
2. 고정자산	(13,868,059)	1. 자본금	(4,161,271)
1) 지급보충금	2,300,000	1) 기본금	4,161,271
2) 전신전화가입권	750,000	2. 당기발미채분이익잉여금	(3,200,166,605)
3) 비품	52,981,536	1)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3,200,166,605
감가상각충당금	42,163,477	※당기순이익	(174,022,437)
합계	3,320,366,985	합계	3,320,366,985

손익계산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매출액	(158,280,688)	13) 관악회기금전출	0
1) 회보 광고료	158,280,688	14) 잡비	3,347,978
2. 매출원가	(418,846,404)	15) 부가가치세	16,285,780
1) 간행물비	418,846,404	16) 수익사업 비용	47,877,156
3. 매출총이익	△260,565,716	5. 사업비 차감후 이익	(△946,158,923)
4. 목적사업비	(685,593,207)	6. 영업외 수익	(1,121,781,360)
1) 인건비	130,898,610	1) 회원회비	657,833,381
2) 회의비	35,230,668	2) 수입이자	225,065,102
3) 여비 교통비	5,674,700	3) 찬조금	235,803,407
4) 전산화비용	22,202,970	4) 잡수입	3,079,470
5) 사무비	40,288,469	7. 영업외 비용	(1,600,000)
6) 세금과 공과	8,394,100	1) 고유목적사업 지출준비전입액	
7) 보험료	7,092,100	2) 잡손실	1,600,000
8)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14,545,650	8. 특별손실	0
9) 감가상각충당금	11,898,164	1) 고정자산처분손실	0
10) 친목사업비	68,659,696	9. 법인세차감전이익	(174,022,437)
11) 지원사업비	50,164,006	10. 법인세 등	
12) 조직강화비	223,033,160	11. 당기순이익	(174,022,437)

위와 같이 공고함
2001.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서울디지털대학교 曹圭香총장

3학기제 운영...평생교육의 문 '활짝'

지난 3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대학생이 생겼다. 학생들은 캠퍼스 강의실 대신 자기 집 컴퓨터 앞에 앉는다. 필기 도구 대신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자판을 두드린다. 이른바 사이버 대학생의 모습이다.

올해 3월 정식으로 입학한 사이버 대학생은 서울디지털, 열린사이버, 한국디지털, 한국사이버, 서울사이버, 경희사이버, 세종사이버, 세계사이버, 경북사이버 등 9개 대학, 39개 학과(부)에 총 6천2백20명이나 된다. 평균 경쟁률도 2.5 대 1에 이른다.

이들 사이버 대학의 등장으로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실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고, 평생교육의 기회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계획에 따라 공부 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수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저마다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적도와 교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으로 정식 개교한 서울디지털대학교(SDU)의 曹圭香(64년 法大卒)총장을 만나 보았다.

— 최근 사이버 대학이 대두된 배경은.

『과거에는 인터넷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IT기술상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 나라의 정보화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정비되어 전국 시·군·읍·면의 초등학교까지 초고속 통신망이 설치돼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게 됐지요』

『국내 정보화 인프라가 잘 정비된 이유 중 하나는 기본 설치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는 것입니다. 국토가 넓

은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살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가구 60% 이상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다가구 주택에 살기 때문에 광케이블 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지요』

— SDU의 학부 구성과 특색은.

『법률행정학부, e-경영학부, 멀티미디어학부, 국제지역학부 등 총 4개 학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학부는 법학 전공, 경찰행정 전공, 행정학 전공/e-biz 전공, e-금융 전공, e-회계 전공/게임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컴퓨터응용디자인 전공/일본지역 전공, 중국지역 전공으로 세분화되지요. 이번 신입생 선발에서 멀티미디어학부의 경우는 경쟁률이 5 대 1로 치열했어요. 국제지역학부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 남미, 아프리카, 아랍권의 지역으로 전공 분야를 넓혀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의 특색이라면 1년을 3학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1학과 3학기는 일반 대학의 1·2학과와 동일하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학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적 우수자의 경우 3년 내에 조기졸업이 가능하죠. 그러나 실제로 공부해보면 어려울 거예요. 매시간 ID로 출석체크를 하고, 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수업 후에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게 하고, 팀별로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신입생 모집 때 장애인전형도 실시했는데.

『정원 8백명 중에 직장인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70%, 일반전형으로 25%를 모집했으며, 나머지 5%는 장애인에게 배정했는데 실제 1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이 문제가 되는데,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는 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요. 이번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LG연암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1년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 방송통신 교육과의 차이점은.

『자기 시간을 직접 배분·관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하고 싶을 때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방송통신 교육은 꼭 그 방송 시간에 보거나 녹화해서 들어야 하지만, 온라인 사이버 교육은 인터넷상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각자의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지요. 출장이 잦은 직장인의 경우,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PC방에 가서 연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시간에 근접한 쌍방향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mail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교수와 직접 토론을 할 수 있으며, 강의 내용을 프린트로 인쇄해서 볼 수도 있어요』

— 해외 사이버 대학과도 경쟁이 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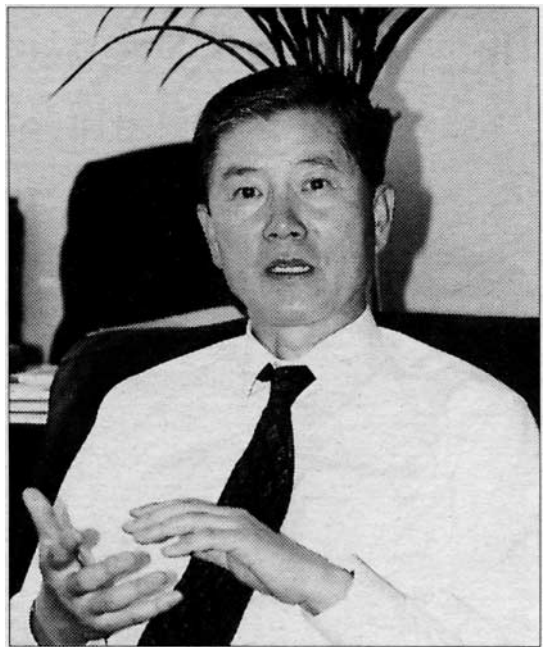
『외국 사이버 대학은 언어문제 때문에 상당한 장벽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교육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아직 작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외국학위에 대한 열기도 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운영 계획은.

『우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스터디그룹, 동호회, 동아리는 물론 자유토론방 등을 신설해 학습자 중심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시스템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속량이 증가하는 주말에는 교수 및 기술인력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학점과 연계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회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콘텐츠 개발에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영어 강좌의 경우에는 미국 「글로벌 잉글리쉬」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曹圭香은 지난 66년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문교부 대학국장·대학정책실장·기획관리실장·차관을 거쳐 국정교과서 사장, 부산외국어대 총장,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부인 李仙姬여사와 3녀를 두었으며, 탁구와 정구를 즐기는 활동파이다.(서울디지털대학 : www.sdu.ac.kr) (변)



2000년도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4,353,118,893)	I. 유동부채	(173,198,572)
(1) 당좌자산	(4,353,118,893)	1. 미지급금	4,664,697
1. 현금	4,187,688,043	2. 예수금	1,199,970
2. 유가증권	10,000,000	3. 부가세예수금	10,654,820
3. 미수수익	31,413,169	4. 예수보증금	1,793,000
4. 미수금	62,068,880	5. 단기차입금	62,000,000
5. 선납세금	61,948,801	6. 선수수익	92,886,085
(2) 재고자산	0	II. 고정부채	(1,183,242,785)
II. 고정자산	(1,435,816,768)	1. 임대보증금	1,045,740,000
(1) 투자자산	2,562,672	2. 퇴직급여충당금	9,172,420
1. 전신전화가입권	2,562,672	3. 국민연금전환금	
(2) 유형자산	(1,433,254,096)	4. 교육목적사업준비금	128,330,365
1. 토지	655,715,410	부채 총계	(1,356,441,357)
2. 건물	1,077,258,031	자본	
감가상각누계액	400,754,726	I. 자본금	(1,831,429,422)
3. 구축물	407,358,313	1. 자본금	1,708,855,444
감가상각누계액	348,065,864	2. 기본잉여금	122,573,978
4. 기계장치	136,949,344	II. 자본잉여금	0
감가상각누계액	98,991,897	1. 자본준비금	0
5. 차량운반구	18,400,960	2. 재평가적립금	0
감가상각누계액	17,415,885	III. 이익잉여금	2,601,064,882
6. 비품	79,269,218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601,064,882
감가상각누계액	76,468,808	IV. 자본조정	0
(3) 무형자산	0	자본 총계	(4,432,494,304)
자산 총계	(5,788,935,661)	부채와 자본 총계	(5,788,935,661)

손익계산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매출액	326,402,900	17. 소모품비	13,337,350
1. 임대료수입	192,473,200	18. 지급수수료	8,936,890
2. 유지료수입	133,929,700	19. 광고선전비	3,512,500
II. 매출원가	0	20. 잡비	2,171,110
III. 매출총이익	326,402,900	21. 청소비	3,087,100
IV. 판매·일반관리비	353,674,871	V. 영업손실	
1. 직원급여	75,794,200	VI. 영업외 수익	27,271,971
2. 상여금	16,280,000	1. 이자수익	287,122,999
3. 잡금	195,000	2. 환조금수입	444,025,673
4. 퇴직급여충당금전입	9,172,420	3. 동창회전입	0
5. 퇴직급여	7,273,370	4. 잡이익	365,985
6. 복리후생비	17,789,607	VII. 영업외 비용	293,286,488
7. 여비교통비	1,400,000	1. 이자비용	3,559,239
8. 임대비	888,120	2. 기부금	2,500,000
9. 통신비	7,132,329	3. 목적사업준비금전입	287,122,999
10. 수도광열비	43,938,090	4. 잡손실	104,250
11. 세금과 공과금	39,591,332	VIII. 경상이익	410,956,198
12. 감가상각비	66,286,935	IX. 특별이익	0
13. 수선비	26,983,100	X. 특별손실	0
14. 보험료	3,121,850	XI. 법인세차감전이익	410,956,198
15. 차량유지비	6,381,840	XII. 법인세 등	0
16. 사무용품비	401,728	XIII. 당기순이익	410,956,198

위와 같이 공고함
2001. 3.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金在淳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 李勝燁사장

가정대 의류학과 출신 남자 교수 1호

패션정보회사 CEO로 새로운 인생 도전

남자로서는 드물게 모교 가정대를 졸업, 의류학과 출신 남자 교수 1호라는 경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패션정보회사인 (주)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에서 CEO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李勝燁(93년 家政大卒)동문.

여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학과에 李동문이 지원하게 된 계기는 고교시절 미술 등의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다. 고교시절 특별활동에도 미술부를 주저 없이 선택할 정도로 그 관심은 실로 대단했다.

하지만 대학 지원시 의류학과에 원서를 넣겠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면서 李동문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던 부친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 그렇지만 의류 및 패션관련 분야를 공부하겠다는 李동문의 굳은 결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李동문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대학 내에 고교 동문모임이 활발했던 당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李동문은 어느 날 고교 동문모임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함께 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

을 때쯤 관례상 같은 단과대별 고교 동문모임이 시작됐다. 바로 이때 李동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들 자신이 속해있는 단과대의 선·후배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李동문은 학과의 특성상 같은 고교출신 동기나 선배가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류학과에 남학생으로 재학 중인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인데, 이곳에서 같은 고교출신 동기나 선배를 만난다는 것은 실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러한 李동문의 모습을 바라보던 선배들의 눈빛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두커니 서있던 李동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단과대학이 바로 공대 소속의 선배들로 가칭 가정공대(?)라는 이름으로 李동문을 합류시켰다. 李동문 한 명 때문에 가정대·공대 연합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또한 李동문은 재학기간 동안에 대리출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니 아예 불가능했다. 40명 정원에 남학생이 3명이니 대리출석 성공의 가능성이 요원한 것은 뻔한 일.

그렇게 쉽지(?) 않은 대학 4년을 보낸 李동문은 졸업 무렵 대학원 진학과 취업이라는 기로에서 대

학원 진학을 선택, 관련분야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李동문에게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다. 전 주기전여자 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진력해오던 李동문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그것은 기존에 李동문이 가지고 있던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李동문은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론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 교수직에 대한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李동문에게 뜻하지 않은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를 설립,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후배에게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여러 차례의 생각 끝에 李동문은 후배의 요청을 수락, 지금의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에서 교수가 아닌 CEO로 새로운 인생을 펼치고 있다.

李동문이 사령탑으로 있는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는 인터넷 패션정보회사로, 국내 최고의 온라인 프로페셔널 패션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가 개설한 기업대상 사이트 「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는 미국의 뷰파인더社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한 국내 최초의 패션전문 사이트로, 뷰파인더社가 제공하는 「www.firstview.com」의 컬렉션 콘텐츠와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의 Hexa정보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 패션 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최적의 신개념 패션정보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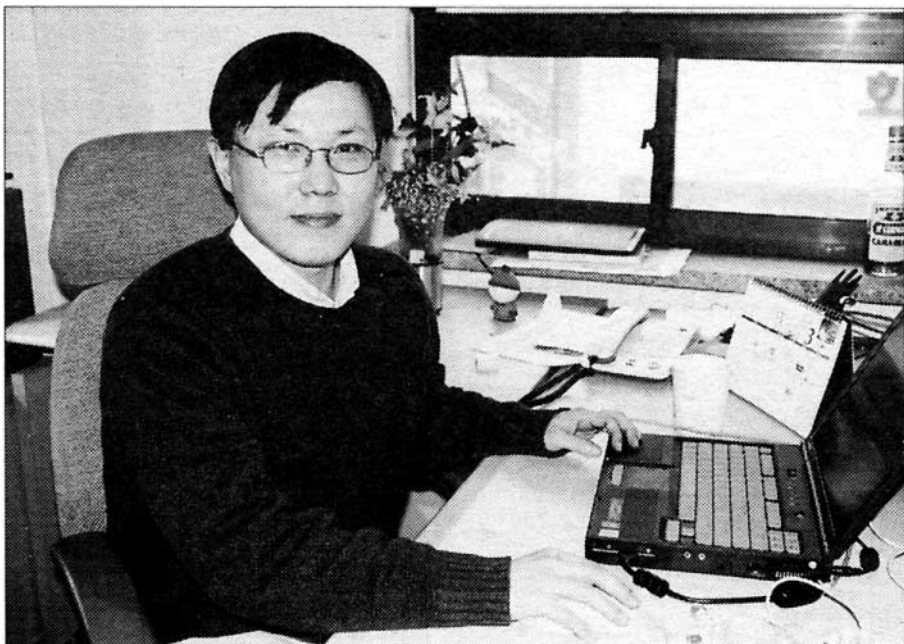
「퍼스트뷰코리아」는 크게 컬렉션과 리뷰컬렉션·트렌드·서베이·디자인포커스·데이터베이스 등의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패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하고 패션의 흐름을 매월 정리·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시즌의 패션 경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절별로 실시하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행동, 패션관련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가운데 약 25%가 모교 의류학과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프로패션정보네트워크는 지난 99년 12월 특허 출원한 인공지능 감성 데이터베이스로 1대1 맞춤정보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패션과 관련된 진학정보실, 패션정보실, 도서관 등을 갖춘 패션스쿨 「패션스터디(www.fashionstudy.co.kr)」 사이트를 이미 오픈한 상태이다.

李동문은 『앞으로 영문 사이트를 개설해 홍콩시장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信)





당진지부

서해안 시대 개막으로 동창회 활기 되찾아

글: 邊碩斗(57년 齒大卒·번치과의원장)회장

봄은 새 출발의 계절, 축복의 계절이라고 한다. 봄기운이 완연하게 무르익어가고 있는 화사로움 속에서, 그 동안 다소 침체 속에 놓여 있었던 당진지부도 보다 알찬 활로를 찾기 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 한다.

당진은 우리 나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충청남도 최북단에 인구 1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군청 소재지이다.

또한 동으로는 아산만, 서로는 서산시와 접해있으며, 남으로는 예산군과 맞닿아 있다. 특히 당진은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접이형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4백미터 미만의 낮은 파도 무늬의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침강성 리아스식 해안과 차령산맥에서 뿜어 내린 태안반도와 그 분수령인 아미산과 다불산을 중심으로 구릉지대가 전개된다.

연안에는 갯벌의 발달이 뚜렷해 간석지로 되어 있으나 송산 방조제, 삽교호 방조제, 대호 방조제 및 석문 방조제 등의 완공으로 간척 답의 면적과 임해공단 조성이 활기차다.

한편 그 동안 충남 북부지역의 오지였던 당진은 지난해 11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과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명소가 돼버린 7천3백여 미터의



邊碩斗 회장

서해대학교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해가 뜨고 지는 외목마을, 농업기반공사 대호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도비도의 해수탕, 심훈 정신이 어린 「상록수」의 발상지, 퇴역함정 두 척으로 조성중인 함상공원 등 점차 모든 면에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당진지부는 서울대동창회의 막내 지방지부로 승인 받기 훨씬 이전인 1980년 7월 12일 이미 회원 20명이 모여 회칙을 정하고 동창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崔炳珉(50년 齒大卒)·부회장에 金炳曄(56년 醫大卒)·총무에 金圭浩(72년 藥大卒)동문을 선출하고 동창회 활동의 첫 항해를 시작했다.

그후 1984년 3월 제2대 임원으로 회장에 金炳曄동문, 부회장에 朴幸運(60년 齒大卒)동문, 총무에 金圭浩동문을 각각 선출했으며, 3대 임원에 印秀煥(58년 商大卒)회장, 朴幸運부회장, 張德起(80년 藥大卒)총무가 선임돼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공헌했다.

이어 4대 회장에 崔武在(59년 農大卒)동문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林仁善(58

년 獸醫大卒)동문, 총무에 李世瀾(73년 文理大卒)동문이 선임됐다. 1996년 1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林仁善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李仁根(64년 農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지난 1998년 4월에 가진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필자가 선출됐으며, 총무에 金圭浩동문이 선임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진지부는 서울대동창회의 27개 지방지부 가운데 가장 막내동이지만, 그 역사는 20여 년에 이르고 있으며, 한때는 회원 수 40여 명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동창회가 운영되기도 했었다. 현

재는 사회의 전반적인 침체현상으로 인해 회원 수가 20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며, 모임도 연 2회 정도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점차 서해안 시대가 활짝 열리고, 교통편의의 확충으로 공단이 활성화되는 등 경기 침체의 늪에서 점차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당진지부 또한 회원 수 증가는 물론 희망적인 지부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당진지부의 도약의 내일을 밝히는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임원회의



체육교육과 동창회

스포츠를 통한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

글: 李康法(61년 師大卒·산정호수·은곡 유스타운 원장)회장

서울대학교 설립 반세기가 지난 지금, 체육의 활동 영역이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체육교육과도 이에 부응해 더욱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육교육과는 1946년 8월 사범대학 체육과로 발족하여 1975년 2월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체육학의 세부 전공별로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랑스런 서울대 체육인의 모임인 '체육교육과동창회'는 「체우회」라는 명칭으로 지난 1958년 결성됐으며, 초대 회장에 故 羅絢成(50년 師大卒)동문이 선출되어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데 크게 노력해왔다.

현재 체우회는 필자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회장에 白正範(62년卒)·權潤芳(63년卒)·金碩鎮(63년卒)·高斗源(64년卒)·林繁藏(64년卒)동문, 총무에 金榮祚(78년卒)·全泰源(79년卒)동문 등이 더 나은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 수 2천여 명을 자랑하는 체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모교 우수 재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5월경 각 운동부별 재학생 주최 하에 친선경기를 통해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엔 모교 방문의 날 행



李康法 회장

사를 개최하여 동문간 친목 도모와 동문 동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차기년도 일정을 수립함과 동시에 새해를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체우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각 운동부별, 동기별 자발적 모임과 체육교육과 홈페이지(sports.snu.ac.kr)를 통한 동문간 연락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졸업 후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전문분야에서 저마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역군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으며 중등학교 교사 외에 전국의 체육관련 학과 교수로 많은 수의 동문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체육관련 기구나 단체에 소속되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선도적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또한 체육과학 연구원과 병원 등 체육 관련 연구직에도 종사,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연구 과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수의 동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각각 진출하여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우회 회원들은 학교체육은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체육지도의 내실화, 스포츠의 과학화, 그리고 체육 인구의 저변화를 통한 체육분야의 질적 제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체육계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체육교육과의 미래 지향적 과제 중의 하나로 체육학 관련 학과 명칭의 변경에서부터 교육과정이나 학과·대학원의 운영 체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모교의 변화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체육교육과의 독자적인 인간운동과

학부 및 인간운동과학 대학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체우회 회원들은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 만났고, 스포츠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체우회는 미시적이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체육을 통하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타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끝으로 체우회 회원들의 노력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어두운 거리에 환한 등불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鄭哲秀·金炫秀·崔玉洙·全泰源·劉永彩동문.



⑤7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의 「무디스社」 꿈꾸는 21세기 유망기업

차세대 인터넷 신용조회시스템 「SIREN24」 선보여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신용평가사업에서부터 금융권의 3D업종이라 부르는 채권 중심사업까지, 신용정보회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우리 나라는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의 정보화시대 및 신용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떠올랐다.

이렇듯 신용정보회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2년 신용사회 정착을 경영이념으로 내걸고 국내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회사가 있으니 바로 서울신용평가정보(주)(회장 尹義權·49기 AMP)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SCI: Seoul Credit Security & Information)는 특히 신용평가기관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순수 민간자본기업으로 최초로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지난 98년 5월에는 민간업계 최초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채권추심사업을 허가 받은 후, 국내 채권추심 시장규모의 40%를 점유, 현재까지 약 12만8천건에 걸쳐 3조원에 달하는 채권추심의뢰액을 수주 받는 등 채권추심업계에 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업분야는 크게 신용평가사업, 신용조회사업, 채권추심사업, 신용조사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올해 집중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신용평가와 신용조



尹義權 회장

회로, 특히 신용평가사업에서 대폭적인 매출 신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 정확한 신용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21세기 신용사회의 밝은 미래 선도」를 모토로 내걸고 있는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신용등급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디스社 부사장 출신의 ABS부문 수석 애널리스트와 자산관리 및 구조조정 부문 애널리스트를 고문 겸 컨설턴트로 영입했으며,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재무분석가 등 국내 최고의 평가위원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작년 7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용조회사업 시장에 진출, 차별화된 신용조회시스템을 선보여 업계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신용조회시스템 「SIREN24(www.siren24.com)·SCI Information Reporting & Evaluation Network 24」가 바로 그것.

이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특화된 고객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이 주로 금융기관 및 대형 유통사업자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벤처 및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전문성과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이와 함께 세계적인 신용정보 데이터회사들과 연계해 세계적인 테크노 크레딧 밸리(Techno-Credit Valley)를 구축, 인터넷, PC통신, ARS 등 3개 분야를 통합한 SIREN을 통해 고객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SIREN24」는 크게 신용정보, 기업정보, 프리미엄정보로 구성돼 있다. 신용정보는 개인 및 기업의 신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기업정보는 기업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력상품, 사업장 소재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프리미엄정보는 주로 벤처 및 중소기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엄선, 높은 가치를 지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데이터베이스 업체망을 이용,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기업 및 상품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부실채권 예방과 기업의 채권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기업간 신용거래 촉진 및 기업경영 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신용평점시스템(CCS), 위험관리시스템(RMS) 등 신용평가사업의 발전 방향시스템까지 구축,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신용조회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이끌고 있는 尹회장은 국내 신용정보업계의 개척자로, 「움직이는 정보통」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尹회장은 지난해부터 청주 세광고 출신 가운데 모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근육병 환자 요양소 건립 후원 등 장학 및 사회 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영을 항상 강조하는 尹회장은 『올해 안에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 무디스社와 어깨를 견줄 만한 국내 제일의 종합신용평가회사로 등극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表)



본사 전경

서울대학교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주십시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연구, 교육, 시설, 국제교류 등 학교발전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단순히 학교경비를 충당하는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과는 달리 영구히 재산이 보존됩니다.



1구좌(10만원) 이상 출연하시면

서울대학교가 제작한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일백만원 이상 출연하시면

학교소식지와 재단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일천만원 이상 출연하시면

희망에 따라 기금명칭을 부여하고 별도 관리해드립니다. 감사패를 증정하며 대학본부 입구에 출연자 명패를 설치합니다.

※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교소식

2001학년도 4천7백2명 입학

李총장 “남을 배려하는 상생의 덕목 길러야”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閔相基대학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본회 孫一根 상임부회장, 金基鏞기성회장, 신입생,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기관장 소개에 이어 李基俊총장은 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굳은 의지와 실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상생의 덕목을 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사 요지 참조〉

2001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결과는 추천전형 7백90명, 특채전형 7백24명, 정시전형 3천33명, 정원의 학생입학전형 재외국민 1백13명, 외국인 42명 등 총 4천7백2명이다.

모교 연구공원 본관 개관

창업지원센터·33개 기업 입주



1990년 초부터 LG전자, SK텔레콤, 한전 등의 지원을 받아 모교 관악캠퍼스 후문 부근에 조성하고 있는 연구공원의 본관 건물이 4월 12일 개관식을 개최한다.

본관 건물은 연건평 5천7백80평(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연구공원 내 모든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및 Power plant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에는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 모교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TEPS 사업본부, 보육센터소속 33개 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특히 창업지원센터(소장 李俊植·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교내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 육성

에 관한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실무적 중추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네트워크, 유전공학연구소 보육센터, 의학연구원 보육센터, 농생명과학대학 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위한 물적자원의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관한 본관 건물내에는 13평에서 36평에 이르는 62개의 보육실(Incubator), 영상 및 AV시스템을 완비한 강당, 회의실은 물론 식당, 사우나실, 트레이닝 및 에어로빅룸 등의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현재 연구공원내 LG전자연구소, SK텔레콤연구소 등 산학기술·정보협력의 산 모델로 민간연구소 등이 공사 중에 있는바 2002년에 준공되면 명실공히 산학협력의 연구공원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관식 후에는 입주업체들의 투자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李基俊총장 입학식사 요지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대학이 함께 해 나가야 할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으로 우리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세기에는 21세기 비전을 밝혀주는 주인공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지식혁명, 정보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갖추게 될 창조적인 지식과 다양한 정보는 여러분 개인의 경쟁력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빠른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노력한다면 여러분에게 21세기는 새로운 기회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서울대학교는 과감한 변혁을 통해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여러분이 폭넓은 지식과 창의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굳은 의지와 실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상생의 덕목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자각하고, 장래를 책임질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다른 문화, 나아가 주변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덕목을 갖추기 바랍니다. 우수한 두뇌집단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문화를 향해 열린 가치관을 갖는데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열린 세계관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만하임 음대와 연합공연

유럽에 서울대인의 기량 선보여

음악대학(학장 金 旻)은 독일의 대표적 음악대학인 만하임 국립음대와 교수·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첫 프로그램으로 모교 음대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독일 5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했다. 음대 지휘자(林憲政)와 학생

오케스트라 50여 명이 만하임 음대 학생들과 연합오케스트라를 구성, 슈투트가르트·만하임·하이델베르크 등을 돌며 연주했다.

내년에는 만하임 음대 교수와 학생들이 서울로 와서 3~4회 연주할 예정이다. 〈變〉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개관식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는 산학협력의 결실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일 시 : 2001년 4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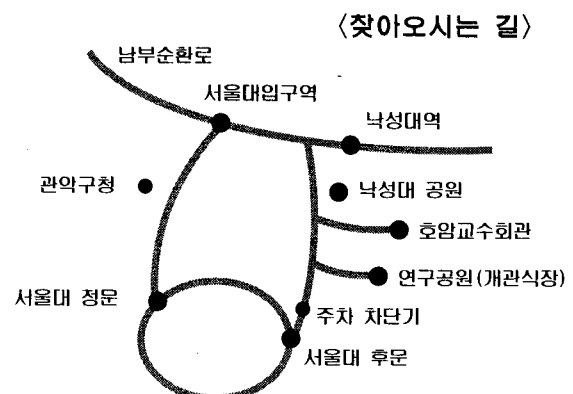
◎일 정 : 개 관 식 11:00~12:00

오 찬 12:00~13:00

투자설명회 14:30~16:00

◎연 락 처 :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 (TEL)2102-1811/2

(FAX)2102-181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수의과대학 학장에

수의학과 李興植교수 선임

지난 3월 2일 수의과대학 학장에 수의학과 李興植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李학장은 65년 모교 수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67년)·박사(76년) 학위를 받았다. 수의대부설 수의과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해부학회·세계수의해부학회·대한수



의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에

사회학과 慎鏞慶교수 선출

지난 3월 19일 모교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회학과 慎鏞慶교수(사진)가 제25대 회장에 선출됐다.

慎회장은 61년 모교 문리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독도학회장, 독도연구보전



협회장, 국사편찬위원, 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대학신문 주간에

서양사학과 裴永洙교수 임명

지난 3월 8일 모교 대학신문 주간에 서양사학과 裴永洙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신임 裴주간은 76년 인문대를 졸업하고 78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9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해 왔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문 열어

교수들의 강의활동 지원

지난 3월 8일 관악캠퍼스 교육매체제작소 대강의실에서 모교 교수들의 강의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개소식이 열렸다.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金永洙)는 주로 교육기자재 대출과 기기사용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매체제작소(IMC)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교수법 개발, 강의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지원, 웹

보조 수업 및 멀티미디어 강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매체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신임 교수와 조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미시간 공대 조 벽 교수가 「지식 창조 시대의 대학 교육」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국제 컴퓨터프로그래밍 대회서

세계 8위·아시아권 1위 차지

모교 공대 컴퓨터공학부팀(지도교수 朴權洙)이 지난 3월 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미국컴퓨터학회 주최 국제대학생 컴퓨터프로그래밍대회에서 세계 8위, 아시아권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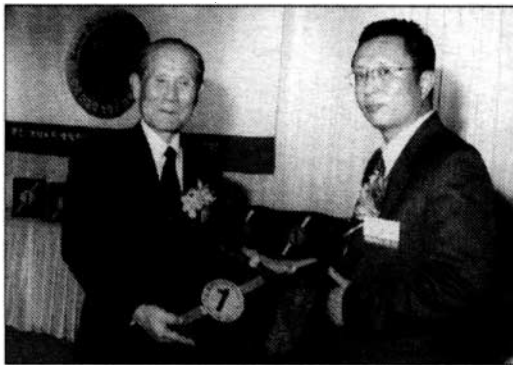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는 지역대회 예선을 거친 64개 대학팀이 참가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진호(99년 工大卒·석사과정)등문 등 3명으로 구성된 모교팀을 비

롯해 한국과학기술원팀과 연세대팀이 참가했다.

올해 처음 출전한 모교팀은 이란 샤리프대(9위), 중국 칭화대(11위)를 누르고 아시아권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팀은 14위, 연세대팀은 29위의 성적을 각각 올렸다. 1위는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대, 2위는 미국 버지니아공대가 각각 차지했다.

모교 병원

종합병원 서비스부문 1위 차지



모교 병원(원장 朴容炫)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제3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 결과, 종합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브랜드 파워 조사는 1백

26개 산업군 2천1백71개의 개별 상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재와 내구재, 서비스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 것으로, 종합병원(서비스 부문)에 대한 브랜드 파워 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브랜드 파워 1위 인증패 수상식은 지난 3월 21일 여의도 CCMM빌딩 우봉홀에서 열렸으며, 모교 병원에서는 鄭道彦(76년 醫大卒)홍보실장(사진 右)이 참석해 인증패를 받았다.

브랜드 파워란 상품 및 서비

세계적인 연구종합대학 도약위해

외국인 교수 10년간 1백50명 채용

해외 노벨상 수상자의 교수 초빙을 추진하고 있는 모교는 세계적인 연구종합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의 유명학자들을 파격적인 대우로 대거 초청, 전임교수로 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5명 채용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 전

임교수를 전체 교수의 10% 수준인 1백50여 명까지 채용한다는 방침을 지난 1월 발표했다.

또 국립대의 특성상 외국인 교수의 봉급을 국내 교수들보다 더 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기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교수를 3등급으로 나

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척도이자 글로벌 경쟁시대를 극복해 가는 주요 과제로,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으로 세 번째인 올해 브랜드 파워 조사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7천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방문조사로 실시됐다.

종합병원 부문에서 모교 병원은 593.9(1천점 만점)점으로, 2위(삼성서울병원 478.2점)를 큰 차이로 앞섰으며, 3위는 세브란스병원, 4위는 서울중앙병원으로 조사됐다.

뉴 A등급은 연간 10만달러(1억 2천여 만원)이상, B등급은 7만 달러(8천4백여 만원), C등급은 4만달러(4천8백여 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교육 연구경력이 15년인 모교 부교수(25호봉)의 연봉이 4천8백여 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월등한 대우로 풀이할 수 있다.

모교는 지금까지 외국 국적의 한국계 교수 2명뿐 순수한 외국인 전임교수는 1명도 없었다.

로, 이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통해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수하게 된다.

陳大濟사장은 「디지털 컨버전스 전개방향」이란 주제로 진행한 첫날 강의에서 「삼성전자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적재적소에 전달해 미래 디지털 리더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 산학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고, 졸업한 지 5년 이상의 졸업생들과 일반 시민들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실을 출입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석·박사 통합과정

5백33명 선발 예정

모교는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대학원 과정 중 석사논문 작성이나 박사과정 입학시험 준비 등으로 연구의 연속성이 저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최근 첫 과정생을 선발했다.

선발예정인원 5백33명 중 2백 65명을 선발했으며, 나머지 미선발 인원을 특차, 정시모집에서 충원할 예정이다. 석·박사 통합과정 자격요건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다. <變>

삼성전자 임직원 15명

모교서 「디지털」 릴레이 강의

모교는 삼성전자(대표 尹鍾龍·66년 工大卒)와 공동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과목(3학점)을 개설, 전자·컴퓨터·통신 전공의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디지털 담당 임직원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지난 3월 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3시간

씩 강의할 예정이다.

강사진은 디지털미디어 총괄 최고경영책임자(CEO)인 陳大濟(74년 工大卒)사장을 비롯해 디지털 컨버전스팀의 권희민 전무, 보좌역실의 전명표 전무, 미래전략그룹의 전동수 상무, 디지털 총괄의 이강석 이사 등 삼성전자내 최고 전문가 15명으

모교 병원 호스피스실 열어

의사·간호사 등 40여명 자원봉사

모교 병원은 지난 2월 21일 본관 2층에 별도의 호스피스실(실장 許大錫)을 마련, 각 과에 분산돼 있던 호스피스 의료팀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는 임종환자를 위해 기존 의료체계에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른바 「완화의학」이라 불리며, 삶의 질을 높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죽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시까지의 삶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즉 호스피스는 간호사, 복지사, 영양사,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종합의료팀이 임종환자 및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가정간호와 입원간호를 제공하는 의료 프로그램이다.

현재 모교 병원 호스피스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비롯해 살롱 호스피스 자원봉사팀 등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에 5~6명의 임종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은 물론 목욕, 산책, 독서 등을 도와주고 있다. (상담 문의 : 760-3066)

중앙도서관 열람실

일반인에게 개방

중앙도서관(관장 李錫浩)은 이번 학기부터 졸업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고 열람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졸업한 지 5년 미만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1명이 지난 2월 28일 정년퇴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京植교수·영문학

60년 文理大卒, 서강대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5년 문리대 전임교수로 부임, 셰익스피어 연구와 강의로 한국 영문학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영어영문학회 상임이사·셰익스피어학회 회장 등을 역임.



石璦澄교수·영문학

60년 師大卒, 텍사스대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교양과정부 전임교수로 부임, 현대 영소설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한국 영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울이론연구회장 등을 역임.



申泰浩교수·독문학

61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75년 인문대 조교수로 부임, 19세기 독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이바지했으며, 한국독어독문학회 이사·한국고대학회 이사 등을 역임.



金時俊교수·중문학

58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9년 모교 전임교수로 부임, 중국현대문학 연구 및 강의를 통해 관련학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중국어문학회장·중국현대문학회장 등을 역임.



元淵洙교수·불문학

58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교양과정부 전임교수로 부임, 한국불어불문학회장·한국캐나다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함.



金顯場교수·서문학

60년 한국의국어대 졸업, 스페인 마드리드대 문학박사 학위.

84년 모교 인문대 전임교수로 부임, 스페인중남미연구소장·한국서어문학회장·동양문화연구소 이사·아시아서어문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



朴宇熙교수·경제학

58년 商大卒, 동경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학위.

67년 모교 상대 조교수로 부임, 경제철학·기술경제학 등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학계와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경제학회·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



李廷珠교수·생명과학

59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교수로 부임, 한국유전학회·한국동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활발한 논문발표 활동으로 학계와 대학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함.



李龜澈교수·물리학

59년 文理大卒, 미워싱턴대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73년 모교 문리대 조교수로 부임, 지난 85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등 물리학 연구 및 강의를 통해 학계 발전과 후학양성에 크게 공헌함.



朴世熙교수·수리과학

59년 文理大卒, 미인디아나대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문리대 전임강사로 부임, 비선형해석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수학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모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대한수학회·한국수리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



金榮澤교수·컴퓨터공학

59년 육사 졸업, 미유타대 대학원 공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공대 전임교수로 부임, 국내 기계번역의 선구자로 기계번역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한국정보과학회장·한국인지과학회장 등을 역임.



辛永常교수·동양학

62년 美大卒.

69년 모교 미대에 부임,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 미술대학의 근대적 교육체계를 정립했으며, 전통미술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 작품으로 한국미술의 위상을 널리 떨치는데 공헌함.



崔滿麟교수·조소

58년 美大卒, 모교 대학원 미술학석사 학위.

67년 모교 미대 전임교수로 부임,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교과과정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조소의 지평을 넓혔으며, 모교 미술대학장·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역임.



沈憲燮교수·법학

60년 法大卒, 모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77년 모교 법대 전임교수로 부임, 한국법철학회·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법철학과 형사법학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함.



李民和교수·제약학

59년 藥大卒, 모교 대학원 약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약대 전임교수로 부임, 한국약제학회·모교 약학대학장 및 대학병원 약제부장·한국병원약사회장·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 등을 역임.



白秉東교수·작곡

61년 音大卒, 모교 대학원 박사 학위.

76년 모교 음대 전임교수로 부임, 현대음악 발표와 창작 및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작곡가협회 이사·한국음악협회 이사·미래악회장 등을 역임.



崔成培교수·미생물학

61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71년 모교 의대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마이크로프라사학회·한불의료인협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미생물학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관련학계에 크게 공헌함.



張家鎬교수·해부학

61년 醫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68년 모교 의대 전임강사로 부임, 대한해부학회·제주대학교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해부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이바지함.



金明國교수·구강해부학

58년 齒大卒, 모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치대 전임강사로 부임, 구강해부학 특히 자기방사법 분야의 연구 등으로 관련학계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구강해부학회·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



金貞順교수·보건학

60년 醫大卒, 미존스홉킨스대 보건학박사 학위.

66년 모교 보대원 전임교수로 부임, 다수의 원인불명 과질의 원인을 찾아내는 등 한국의 역학을 개척·정립했으며, 한국역학회·대한예방의학회장 등을 역임.



任在恩교수·보건학

58년 文理大卒, 모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학위.

70년 모교 전임교수로 부임,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학회, 노년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함.

SNUA OPINION LEADER

최근 체세포 핵 이식 기법에 의한 고능력 젖소 및 한우 복제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생명공학의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올려놓은 黃禹錫교수로부터 생명공학 및 복제기술에 대한 글을 받아 게재한다.

생명공학 기술의 특징과 개발 현황

생명공학이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 대상으로는 의·약학, 동·식물·미생물 등 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농·축·수의·수산학 등 관련 학문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포함된다.

이 기술은 타분야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기초과학 의존적이나 그 연구결과는 산업화로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Human genome project)은 기초분야 기술이지만, 그 결과는 질병 관련 유전자를 탐색하여 치료제나 신약 등을 개발하는 산업적 응용분야로 직결된다.

오랜 연구개발기간과 이로 인해 투자 회임 기간이 수년 또는 수십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 예로서 특정유전자가 적중된 동·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십수년이 소요되며 체세포 복제동물이 태어나기까지 각국에서는 15년의 연구과정이 있었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은 정보·전자나 신소재기술 등과 상호 결합하여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형태 등으로 발전해가면서 성장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분야로서 생산물은 극소량일지라도 매우 고가이며, 산업적 잠재력이 막강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국가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3년에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이 기초가 되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구성되었고 뒤이어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년~2007년)을 토대로 기술개발이 추진돼오고 있다.

공공연구비 투입현황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7개 부처에서 6천5백79억원이, 작년에는 2천1백40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들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로서 체세포 복제동물의 생산, 인공씨감자 개발, 에이즈DNA백신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서 1999년에 「인간 유전체 기능연구 사업단」을 설치하여 2009년까지 총 1천7백70억원을 투자, 위암·간암 등 한국인 호발질환의 치료생존율을 현재 20%에서 2010년까지 60%수준으로 제고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2000년에는 「자생식물이용 기술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식품의약·기능성 향장품 25종, 식물백신 5종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에는 「식량작물의 분자유종 기술개발 사업단」과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

발 사업단」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21세기 생명기술의 목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양결핍과 질병으로 매년 수많은 「인간」이 죽어간다.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서는 우리 「동족」이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커다란 국지전이나 세계대전은 대개 식량과 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된 시점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일부 논자들은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절대량은 세계인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한다. 단지 왜곡된 경제체제와 분배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응 타당한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인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이상적 지적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개간이나 간척사업 등으로 아무리 재배면적을 확대시켜도 개발이나 사막화에 의해 잠식당하는 경작면적을 상쇄할 방안은 못된다. 재래영농기술로 농작물의 소출량을 향상시키기에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산업화로 직결되는 생명공학 기술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만들어 내 식량·환경·질병문제 해결의 도구

유전 형질 전환 복제동물 생산으로 암·치매 등 난치병 치료의 길 열려

즉, 전 세계의 먹거리 총량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으나 지구의 인구는 아직도 증가 일로다. 해결방안은 전쟁이나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강제적 인구도태를 유도하든지, 인간의 소화생리를 아예 바꿔,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여 식량증산을 달성하는 방안밖에는 없다. 이 가운데 이성적 판단력을 지닌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무엇인가는 자명하다고 하겠다.

죽음의 고통에 짓눌리던 어린 백혈병환자, 치매상태의 家長을 구원하느라 정상적 사회활동을 포기해야 했던 가정, 난치성 질병으로 생의 중간지점에서 날개를 접어야 했던 엘리트 중견인, 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활기찬 삶의 역동을, 재도약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일까. 현대의학은 이들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생명공학 기술은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 해결의 열쇠를 넘겨받아 안락하고 희망찬 21세기 삶의 지평을 열 것인가, 고통과 갈등을 함께 하는 20세기적 생활양식을 답습해야 할까.

생명복제 기술의 현황과 적용영역

생명체의 복제, 특히 포유동물의 복제는 20세기 과학사 가운데 최대업적의 하

나가 될 만큼 큰 이슈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보다는 일부 측면의 지나친 부각과 함께 인간복제에의 연계 등 발전적 논의가 오히려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개념으로 복제라 함은 체세포 복제를 일컫는 바, 세포제공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적 적용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즉, 우량가축을 선발하여 보급하거나, 특정유전자를 적중시킨 형질 전환 복제동물 생산에 의한 치료물질의 생산, 인간장기 제공 동물 개발 및 질환 모델 동물의 대량확보 등이 일차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 초기 배아 상태로 복제하여 줄기세포(stem cell)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암이나 치매, 당뇨병과 같은 난치성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용 세포 생산에의 길에도 바짝 다가서고 있다.

아울러 異種間 복제도 관악의 연구진에 의해 그 가능성이 확인되어 복제기술의 적용영역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생명체 복제에 관한 한 국내의 기술수준도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창의적 두뇌와 성실한 연구의욕이 이 기술개발에 제일 가는 요소라는 점에서 수십,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기타 과학기술과 차별성이 있으며, 바로 이점이 연구개발비 투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우리 나라에서도 한번 겨뤄볼 만한 기술분야라 생각된다.

필자는 연구비 지원규모가 기술개발 성과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부족 분은 사명감이라는 보다 큰 위력을 지닌 항목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풍요 속의 나태를 걱정하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파쇼근성에서 유래되는 기우일까?

생명복제 기술의 문제점과 미래

대부분의 생명공학 기술은 그 쓰임새에 따라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생명의 창조에 견줄 수 있는 생명복제 기술은 선용이나 오·남용이나에 따라 극단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악용시의 해악은 타분야 과학기술에 비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술개발과정 및 적용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黃 禹 錫

- 77년 수의대 졸업
- 모교 수의대 수의학과 교수
- 농림부 기술정책 심의위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 전문위원
- 한국수정란이식학회 부회장
- 한국임상수의학회 부회장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과정을 밟은 적이 있으나 15대 국회의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고, 제16대 국회에서 청원된 상태에서 활발히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안전윤리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용역사업 후 공청회를 개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대한 각국의 규제수준은 독일과 같이 2차대전시 생체실험의 악몽을 겪은 나라에서는 철저한 통제가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허용법규가 의회를 통과하였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인간 개체 복제는 철저히 금지되 과학발전과 의료기술개발 측면은 지원 내지 허용하려는 법제정 과정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일부 과학자들이 척박한 여건에서도 관련 기술의 선도국내지 선진국으로 위치하도록 기술개발을 해왔으나 최근 생명윤리 및 사회의 건강성을 내세우는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기술개발 진척이 주춤한 느낌이다.

21세기에는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제선진국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오의학 기술을 경시한 국가 치고 의료복지 상등국은 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생명공학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국가지도자는 더 이상 희망찬 미래를 향해 국민을 이끌 수 없을 것이며, 생명공학 기술의 문외한은 21세기 리더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공학 기술은 바로 인류의 3대 숙제인 식량, 환경,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태교란, 위험한 먹거리 생산, 치명적 질환의 전파역이 될 수도 있기에 사회의 건강성을 도모하며 인류공동선 추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참된 생명과학 기술이 우리 관악에서, 관악인에 의해 우뚝 세워질 날을 기대해 본다.



작은 편지 한 장이 일깨워준 인생의 진정한 의미

孔景熙(87년 人文大卒)번역가



H선생님께,

봄이 오려나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아드님도 수술 자리가 많이 회복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가정이 아이의 수술과 회복이라는 큰 일을 겪는 사이, 저와 유나는 한 달 동안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그곳에서 영상 25도의 여름을 지내다 열 한 시간의 비행만에 영하 17도인 서울의 겨울로 발을 내디디니 몹시 추웠지만, 집이 주는 파스함과 안락함이 얼마나 크던지 강추위가 추위가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힘으로 느껴지더군요.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우편물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새기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을 잡아끄는 것은 선생님의 편지였습니다.

서둘러 서울을 떠나느라 아드님이 수술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과 아드님이 그렇게 힘겹고 아픈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저와 유나는 한가로운 휴가를 보내며, 모처럼 단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렸다는 미안함 때문에 어쩔 줄 몰랐지요. 공연히 부끄러움까지 밀려들어

“
세상이 가르쳐준
잣대로 온갖 것을
평가하며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댁의
겨울나기를 통해
저의 잣대 하나가
여지 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한참 감정을 가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데, 선생님.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을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아드님이 아파서 수술 받았고 그 후의 통증을 겪어 내느라 힘들었던 것, 그런 아이를 지켜보면서 선생님이 느꼈을 감정, 아이가 소리칠 때는 찰나가 영원처럼 마음을 짓누르며 가슴이 매어질 것 같았을 어미로서의 마음... 그건 상상만 해도 숨이 거칠어지는 어려운 경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런 순간을 지내면서 선생님 모자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 모든 것이, 저와 유나가 한가롭게 뉴질랜드의 곳곳을 여행하며 느낀 그 모든 것보다 「가엾고 못한 것」이 아님을 선생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편지를 읽으며 무릎에 힘이 쏙 빠지는 듯 했던 것은, 아드님이 수술 받고 겪은 일이 저희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안쓰러운 것」이라고 속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들이 이기고 견뎌낸 그 시간이 저희가 바닷가

에서 조개를 잡고, 온천욕을 한 것, 마오리족 문화를 보고 푸른 공원을 산책하며 함께 한 시간과 다름없이 귀하다 귀한 경험이었다고 선생님은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니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나무의 뿌리를 땅 속 깊이깊이 내려서 여간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디딤터를 만드셨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편지에서 배운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이 가르쳐준 잣대로 온갖 것을 평가하며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자일수록 좋다, 건강할수록 좋다, 공부를 잘 할수록 좋다... 그런 것이 의심할 여지없는 참 명제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댁의 겨울나기를 통해 저의 잣대 하나가 여지없이 부서져버렸습니다. 수술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선생님 가족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좋은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깨져야 할 잣대가 얼마나 여러 가지일까요. 큰 것을 깨치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격주 휴무제가 안겨준 토요일 오전의 한가로움

河泰鳳(90년 社會大卒)미래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



토요일 오전. 늦은 아침을 먹은 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앙드레가봉을 듣는다. 베란다 창으로 가득 들어오는 푸른 하늘 속으로 퍼져 가는 피아노 선율은 왜 그리도 정감이 넘치는 걸까.

몽롱한 정취에 묻혀 있다가 게으른 몸을 일으키고는 슬리퍼를 신고 문을 나선다. 동네 할아버지, 슈퍼 아주머니와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고, 뛰어 노는 아이들이 마냥 귀여워 등을 톡톡 치기도 한다. 또한 구불구불한 동네 길을 어슬렁거리며 한 집, 한 집 사는 모습을 구경하다, 「아! 이 집에 언제 이런 어여쁜 나무가 있었지? 그래, 이 집 돌담은 언제 봐도 곱스렵단 말이야」라며 동네 집을 감상하기도 한다.

어느덧 길은 시장으로 접어들다. 분식집, 순대집, 국밥집, 통닭집 등 가게마다 맛있는 냄새들을 풍기며 시각과 후각을 즐겁게 한다. 해거름엔 한가한 벼이나 불려내어 순대에 소주나 한잔할까하며 술 생각에 입맛을 다시면서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덧 서점 앞이다. 초대형 서점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책 시장을 장악하고, 거기에다 인터넷 판매라는 첨단 서비스가 가세한 지도 이미 오래인 지금, 그래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 조그만 동네 서점이 눈물겹기까지 하다. 신간들을 훑

“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나라의 국민과
이들을 쉬는 나라의
국민들은 사는
분위기부터 틀리다는
말이 실감이 났고,
이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도입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어보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시편들을 음미해 보기도 한다. 시집 두어 권, 소설 한 권, 어느 혁명가의 평전 한 권. 이렇게 책 서너 권을 사들고 툼툼툼 집으로 돌아온다.

회사에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한 이후부터 2주에 한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버렸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나라의 국민과 이들을 쉬는 나라의 국민들은 사는 분위기부터 틀리다는 말이 실감이 났고, 이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도입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몸담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젊은 동료들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지도 7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휴일·밤낮 구분 없이 일하다보니 어느덧 30대 후반의 나이에 다다라 있었다. 20대 말의 청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장년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란 무엇일까? 세월이란 진정 무엇일까?」하는 한가한(?) 질문들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생존 논리인 「속도」의 손아귀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한동안 헤어날 수 없었다.

토요 격주 휴무제는 그 「속도」의 논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소

박한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속도」는 우리에게 효율을 가져다주는 하지만 깊고 절실한 그 무엇을 주지는 않는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리라. 차를 타고 내달리며 훑어본 풍경과 발로써 걸으며 몸으로 느낀 풍경이 주는 느낌이란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속도와 전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고, 마침내 「광속」이란 무시무시한 속도에 생활 패턴을 맞추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참으로 팍팍하고 고단한 세상이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빠 뛰어나가는 삶보다는 어디로 가는지 살피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도 숨가쁘게 내달리고 있을 우리 동문님들, 부디 이번 주말에는 한 숨 고르시고 편안하게 동네라도 어슬렁거리 보시라.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조그만 것들이 새로운 얼굴을 하고 당신과 숨결을 나눌 것이니.

간호대학

신임 회장에 朴明子동문 선출



孫상임부회장이 楊회장(右)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는 지난 3월 2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李恩玉학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楊회장은 인사말에서 『79년부터 회장직을 맡으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모교발전이라는 목표 하나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와 모교 발전기금 모금 운동, 교육연구재단 설립, 간호대학 건물 준공 등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본회 金在淳회장을 대신해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매년 바자회를 통해 3천여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발전기금 모금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楊회장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노고를 중심으로 치하드립니다』고 축사했으며,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20년간 공헌해온 楊회장에게 공로패와 祝壽선물을 전달했다.

李恩玉학장은 『이제 모교는 국내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활



동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모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외국 대학과 학술교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모교를 졸업한 신입회원에게 회원메달 및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제4장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7항(동창회장으로 재임 중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을 추가하고, 楊銀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明子(원 사진)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朴회장은 49년 모교를 입학, 56년 졸업한 후 경기간호전문대 교수, 고려병원 간호과장을 역임하면서 간호계 발전에 크게 헌신했으며, 서울시교육위원회 장학사 및 연구관을 거쳐 석관중학교 교장으로 후학양성에도 크게 공헌했다.

이르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한편 韓동문은 99년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상」, 「분수의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의료봉사부문을 수상한 白동문은 51년 의대를 졸업한 후 62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대동창회장, 인제대 총장 등을 역임한 白동문은 진료 연구·교육·사회봉사를 몸소 실천, 우리 나라 의료의 질적, 양적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이와 더불어 인당의학교육학술상, 인제인성대상을 제정하는 등 후학양성 및 각종 사회사업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사회공헌부문을 수상한 李동문은 46년 경성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독일 Freiburg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0년 모교 병원에 우리 나라 최초로 동위원소 진료소를 개설, 국내 핵의학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李동문은 72년부터 22년간 대한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88년 대한민국 훈장 모란장, 95년 독일 십자공로 대훈장 등을 수상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李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方永憲·金丁龍·柳聖熙·劉賢源·張基洪·申愛羅동문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서울시 도봉·강북구지회를 비롯한 12개 우수 지회와 19·29·36회 등 우수 동기회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농학과 출신 동문 9명

33년간 후배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난 1968년부터 꾸준히 모교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쏟고 있는 장학모임이 있다.

농학과 57년 졸업동기 9명이 대학 3학년부터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그린장학회」를 설립, 33년간 농학·원예학(現 식물생산과학부)을 전공한 우수 학부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현재 金榮鎮회장을 비롯해 金鍾天·盧秀信·朴章烈·李東右·李斗珩·鄭址賢·河裁滄·韓相麒동문이 그린장학회를 이끌며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모교 재학생 박치옥(식물생산과학부 4년)군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재학생 67명에게 총 6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린장학회 회원들은 졸업한지 40년이 넘어 모두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表)

음악대학

오는 9월 10일 동문연주회 개최



음악대학동창회(회장 金正吉)는 지난 3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가야금 앙상블 「四界」팀인 宋庭旻(91년卒)·高知延(94년卒)·趙修賢(97년卒)·姜孝眞(99년卒)동문이 「새타령」, 「먼훗날의 전설」,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특별연주로 선사했다.

이어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금, 고뇌하며 배웠던 모교를 생각하며 보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예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金회장은

특히 9월 1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될 동문교향악단 연주회에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대학교 동문교향악단 연주회」는 올해부터 오케스트라 외에 동문합창단도 구성키로 했으며, 준비위원장에 韓相宇수석부회장, 준비위원에 羅永秀(한양대 교수)·崔興基(서울필하모니오페라합창단장)·吳世鍾(국립합창단장)·劉鳳軒(나사렛대 교수)·朴昌勳(서울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廉鎮燮(국립합창단 예술감독)·李相勳(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朴治龍(서울몬테트합창단 상임지휘자)동문 등을 선임했다.

마산 지부

신임 이사에 金鎭淳동문 선임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進)는 지난 3월 2일 「그린힐」에서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 동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임원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다소 수정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날 동창회 신임 이사에 金鎭淳(76년 工大卒·주) TMC 부사장)동문을 새로 선임했다.

이날 자리에는 安在鏞(50년

어느 조각 모임

3월 21일부터 기념전

미대 조소과 출신으로 이루어진 모임인 「어느 조각 모임」(총무 趙載妍)은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종로 관훈동 소재 「관훈미술관」에서 어느 조각 모임 기념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33-6469)

의과대학 제2회 합춘대상 시상

韓萬靑·白樂院·李文鎬동문 수상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李회장·朴容昶·李文鎬·白樂院·韓萬靑·李鍾郁동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2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李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모임은 선배에 대한 존경과 후배에 대한 배려, 동기간의 따뜻한 이해가 오고가는 자리』라며 『특히 오늘 가질 합춘대상 시상식은 1만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李鍾郁학장은 『지난 3월 14일 의과학대학원 추진위원회를 발족,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해 2003년부터 의과학대학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춘대상 시상식에서 韓萬靑(모교 명예교수)동문이 학술연구부문상을 수상했으며, 白樂院(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본회 고문)동문이 의료봉사부문상을, 그리고 李文鎬(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원장)동문이 사회공헌부문상을 받았다.

이날 학술연구부문을 수상한 韓동문은 59년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67년부터 33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모교 병원장, 대한방사선의학회 초대이사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다. 韓동문은 모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우리 나라 방사선의학을 국제적 수준에

부산 지부 「마로니에 클럽」

초대 회장에 黃啓文동문 뽑아

부산지부동창회 산하 「마로니에 클럽」이 지난 3월 18일 부산 교대 부근 「텔리」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마로니에 클럽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黃啓文(71년 工大卒·신동양코리아 INC 대표)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金炘旭(68년 藥大卒)·鄭翼株(72년 工大卒)·金修自(72년 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부산지부동창회 文貞奎



회장을 비롯한 金永泰(56년 商大卒)·禹遠亨(56년 醫大卒)·裴一圭(64년 文理大卒)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감사에 朴相鉉(88년 社會大卒)동문, 총무에 趙賢美(87년 音大卒)·河泰鳳(90년 社會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광주·전남 지부

李乃均회장 만장일치 재선임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李乃均)는 지난 2월 12일 제일 오피스텔 20층 「웨딩홀」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承基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으며, 새

로 동창회에 입회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李회장을 재선임했다.

수의과대학

전임 尹志炳회장 추모집 발간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率)는 지난 3월 9일 모교 연건 캠퍼스 수의대 교수회의실에서 李興植학장, 李榮純전임학장, 李文漢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李회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김소현(미생물학 박사과정)양, 박재현(4학년)·은민영(본과 1년)군에게 8백여 만원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지난 3월 17일 공주시 탄전면 덕지리에서 동창회장을

역임한 故 尹志炳(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회장)박사를 기리는 추모집 발간 및 묘비 제막식을 가졌다.

최고산업전략과정

申國煥동문 특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鎭)는 지난 3월 1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회장단 조찬회를 가진데 이어 3월 23일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교 李基俊총장, 李長茂학장, 吳亨植·姜泰晉·朱鍾南교수 등과 지난 1월 수료한 24기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申國煥(63년 法大卒)前 산업자원부 장관이 「富國善隣의 한반도시대 개척을 위한 산업·무역·자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국가정책과정

金鎭炫동문 강연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는 지난 3월 15일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클럽에서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문화일보 金鎭炫(58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고문을 특별연사로 초청, 「한국 개혁의 과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펼쳤다.

국가정책과정 38기

吳鍾泰회장 선임



국가정책과정 38동기회(회장 金光一)는 지난 2월 2일 서초동 한식당 「삼정」에서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吳鍾泰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전임 金光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선출된 吳鍾泰동문은 현재 (주)한일 및 안성컨트리클럽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국미술작가협회 이사장, 한일미술교류회 명예회장 및 한국골프학회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금속공학과

「동문상」 후보자 논의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趙容善)는 지난 3월 7일 서초동 「순두부기와집」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2001년도 「자랑스러운 금속동문상」 수상자에 대한 열띤 논의를 가졌으며, 2000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동창회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모교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앞으로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어느 조각 모임

「어느 조각 모임전·五感」 열어



미대 조소과 출신으로 구성된 「어느 조각 모임」(총무 趙載妍)이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종로, 관훈동 관훈갤러리에서 제8회 「어느 조각 모임전·五感」을 개최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어느 조각 모임은 이날 「五感」을 주제로 한 테마전을 선보였다.

여타 모임과는 다르게 정관이 나 회칙이 없이 서로의 믿음만으로 유지, 존속되어 오고 있는 어느 조각 모임은 이날 작품전에서 회원 각자가 갖는 개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보다 새로운 다양성의 추구에 초점을 맞췄다.

언어학과

새 회장에 趙長鎬동문 선출



언어학과동창회(회장 李傑三)는 지난 3월 23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연회실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趙長鎬(65년卒·한라대 대학원장)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韓東洙(66년卒·부동산써브 상임고문)동문, 감사에 卞光洙(65년卒·한국외대 교수)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趙회장은 내외경제신문 경제부장,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광고국장, 논설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라대 경상학

부 교수로서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칙 개정을 통해 회장의 임기를 2년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차기회장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ROTC 골프동호인회

崔海元동문 우승

65 ROTC 골프동호인회(회장 李京元)는 지난 3월 16일 이포 C.C에서 제12회 동문진선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崔海元(74년 農大卒·네오빌 사장)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崔南圭(64년 商大卒·오라클 고문)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吳世煥(72년 商大卒·아경산업 사장)동문이 Longest에, 梁常弘(66년 農大卒·대흥개발 사장)동문이 Nearest에 각각 선정됐다. (信)

만평

李元馥



동정

수상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장=최근 미국 EPI-PODO POETS & WRITERS ASSOCIATION에서 한국문학을 세계화한 공로로 EPIPODO LITERATURE 특성을 수상함.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학원 이사장·本會顧問=지난 3월 16일 재단법인 常虛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2회 상허대상(의료부문)을 수상함.

▲金商周(56년) 工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3월 6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5회 한국공학기술상을 수상함.

▲鄭然徹(57년) 工大卒·풍국기업 회장=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음.

▲尹鍾熾(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지난 2월 14일 국제문화예술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음.

▲金鎮福(58년) 醫大卒·서울백병원 위암센터 원장=지난 3월 1일 일본위암학회가 수여하는 「Nishi학술상」을 수상함.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羅惠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 동창회장=지난 3월 23일 교통안전회관에서 열린 나주나씨 중앙중친회 정기총회에서 晶月 羅惠錫여사의 행적을 발굴해 국내 최초 여성서양화가, 문학가, 여권운동가 등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음.

▲權哲珍(60년) 法大卒·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음.

▲鄭世煜(60년) 法大卒·명지대 교수=지난 3월 27일 한·프랑스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국가 공훈장」을 받음.

▲康賢斗(61년) 文理大卒·前모교 교수·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지난 3월 26일 모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언론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장을 받음.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 회장·本會副會長=오는 4월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신산업경영대상 「올해의 신산업경영인」상을 수상한다.

▲朴英珠(63년) 商大卒·이건산업 회장=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29일 롯데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2000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副會長=지난 3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제1회 한국 최고의 CEO상을 받음.

▲李哲雨(65년) 農大卒·롯데리아 사장=오는 4월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신산업경영대상 관리대상(영업부문)을 수상한다.

▲鄭津澤(66년) 商大卒·한국물렉스 대표=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음.

▲崔成來(68년) 商大卒·삼성석유화학 사장=오는 4월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신산업경영대상 관리대상(관리부문)을 수상한다.

▲尹學柱(73년) 工大卒·한국아쿠르트 공장장=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음.

▲梁仁模(73년) 行大院卒·삼성엔지니어링 사장=지난 3월 8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고속철도 건설 및 품질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기업체상을 받음.

▲趙南浩(73년) 行大院卒·서울서초구청장=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중앙일보와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가 제정한 제1회 물 사랑 대상(절약운동 부문)을 수상함.

▲金道然(74년) 工大卒·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3월 6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5회 젊은 공학인상을 수상함.

▲徐三英(75년) 行大院卒·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오는 4월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6회 신산업경영대상 관리대상(기획부문)을 수상한다.

▲安圭洪(76년) 工大卒·KIST 연구기획부장=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중앙일보와 아태환경NGO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1회 물 사랑 대상(연구개발 부문)을 수상함.

▲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최근 일본 동경도 미술관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선면전에서 「자연과의 공명」으로 우수상을 수상함.

▲安哲秀(86년) 醫大卒·안철수연구소 대표=지난 3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제1회 한국 최고의 디지털 CEO상을 받음.

▲申仲奎(4기 AMP·피스코리아 대표)=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李揆洪(34기 ACAD·풍산 부사장)=지난 3월 21일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이동·선임

▲朴權相(52년) 文理大卒·KBS 사장=지난 3월 23일 열린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됨.

▲盧隆熙(52년) 法大卒·모교 한대원 명예교수·녹색연합 고문=최근 환경원로들의 모임인 逸士會(서울에 클럽) 회장에 선출됐으며, 「글로벌 500」한국위원회 회장에 선임됨.

▲姜信浩(52년) 醫大卒·동아제약 회장·本會顧問=지난 3월 14일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1

3월 개각에 동문 10명 등용

지난 3월 26일 金大中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에 辛建(63년 法大卒)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장관(급) 개각을 단행했다.

이날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에 林東源(61년 文理大卒)국가정보원장, 외교통상부 장관에



辛建



林東源



韓昇洙



金東信



張在植



吳長燮



鄭宇澤



李根植



梁承澤



金元吉

韓昇洙(63년 行大院卒)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에 金東信(69년 文理大卒)前육군참모총장을 기용, 외교안보팀을 개편했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에 張在植(56년 法大卒)동문, 건설교통부 장관에 吳長燮(27기 AMP)동문, 해양수산부 장관에 鄭宇澤(79년 行大院卒)동문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 기용

됐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李根植(69년 法大卒)한국감정원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梁承澤(61년 工大卒)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金元吉(68년 商大卒)국회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 (燮)

% 클럽」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金始中(55년) 文理大卒·과학기술포럼 이사장=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36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朴煥德(56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3월 2일 한국문학번역원 초대 원장에 임명됨.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컴퓨터 명예회장·전경련 부회장·本會副會長=지난 3월 8일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포럼」 창립총회에서 초대 의장에 선출됨.

▲崔珪圭(57년) 文理大卒·前경제기획원 장관=지난 3월 20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기금관리위원장에 취임함.

▲金鎮炫(58년) 文理大卒·前문화일보 회장·本會副會長=지난 3월 15일 李奉昌의사 기념사

업회 회장에 취임했으며, 22일 문화일보 고문에 추대됨.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총장=지난 3월 14일 한국산업기술재단 창립 이사회에서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金炳翼(61년) 文理大卒·前문화과학지성사 사장=3월 부터 인하대 초빙교수로 임용돼 「문학사 연구」등을 강의함.

▲鄭鎮泰(61년) 文理大卒·前한·러친선협력회장=지난 3월 17일 한국마사회에서 제4대 서울마주협회장에 취임함.

▲尹世榮(61년) 法大卒·SBS 회장·本會副會長=지난 3월 23일 열린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재선임됨.

▲金成勳(62년) 農大卒·중앙대 교수=지난 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제4대 이사장에 취임함.

▲朴雲緒(63년) 文理大卒·LG상

(24면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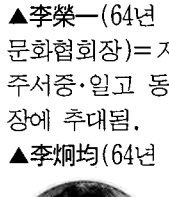
사 대표이사 부회장)= 지난 2월 26일 데이콤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됨.



▲玄明官(63년 法大卒·삼성물산 부회장)= 지난 3월 5일 삼성물산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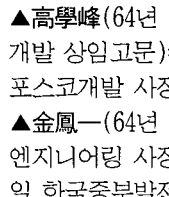
▲權純國(64년 農大卒·모교 생물자원공학부 교수)= 최근 한국농공학회 제43차 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선임됨.



▲李榮一(64년 文理大卒·한중문화협회장)= 지난 3월 9일 광주서중·일고 동창회 제23대 회장에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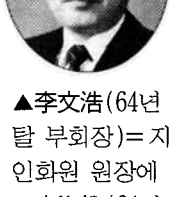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PR협회 명예회장·本報 論說委員)= 지난 3월 5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임됨.



▲高學峰(64년 法大卒·포스코 개발 상임고문)= 지난 3월 20일 포스코개발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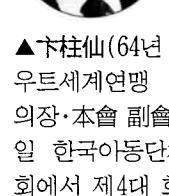
▲金鳳一(64년 法大卒·前대림엔지니어링 사장)= 지난 3월 23일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에 선임됨.



▲金榮秀(64년 法大卒·前문화체육부 장관)= 지난 3월 7일 예술의 전당 후원회 회장에 추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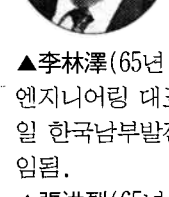
▲李文浩(64년 法大卒·LG캐피탈 부회장)= 지난 3월 19일 LG인화원 원장에 선임됨.



▲李海揆(64년 法大卒·삼성중공업 사장)= 지난 3월 5일 삼성중공업 부회장에 선임됨.



▲卞柱仙(64년 師大卒·걸스카우트세계연맹 아태지역위원회의장·本會 副會長)= 지난 3월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됨.



▲李德林(65년 工大卒·대상 사장)= 지난 3월 16일 대상그룹 및 대상(주)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李林澤(65년 工大卒·前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지난 3월 23일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에 선임됨.

▲張洪烈(65년 文理大卒·前중

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장)= 지난 3월 19일 경기지방공사 사장에 임명됨.

▲趙長鎬(65년 文理大卒·한라대 경상대학장)= 최근 한라대 대학원장 겸 교무처장에 취임함.

▲金正國(65년 法大卒·前서울지하철공사 사장)= 지난 3월 22일 문화일보 사장에 선임됨.



▲裴平一(65년 師大卒·경원대 교수)= 지난 3월 6일 경원대 중앙도서관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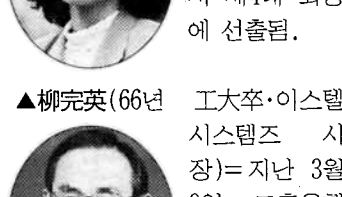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3월 9일 기업·학계·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23일 두산중공업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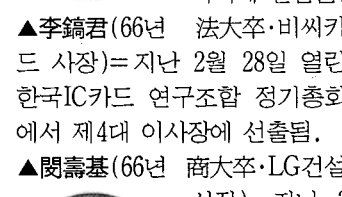
▲洪文信(65년 商大卒·前대한재보험 사장)= 지난 3월 23일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에 선임됨.



▲李芳淑(65년 音大卒·연세대 교수)= 최근 피아노 듀오 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됨.



▲柳完英(66년 工大卒·이스텔시스템즈 사장)= 지난 3월 9일 조흥은행 제169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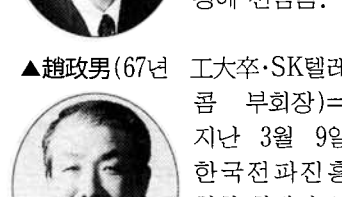
▲李鎬君(66년 法大卒·비씨카드 사장)= 지난 2월 28일 열린 한국IC카드 연구조합 정기총회에서 제4대 이사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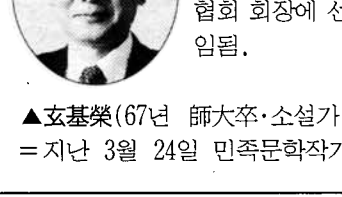
▲閔壽基(66년 商大卒·LG건설 사장)= 지난 3월 2일 LG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됨.



▲李宮勳(66년 商大卒·前포항제철 상임감사)= 지난 3월 20일 (주)포스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趙政男(67년 工大卒·SK텔레콤 부회장)= 지난 3월 9일 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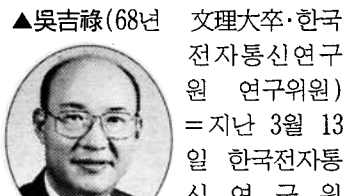


▲玄基榮(67년 師大卒·소설가)= 지난 3월 24일 민족문화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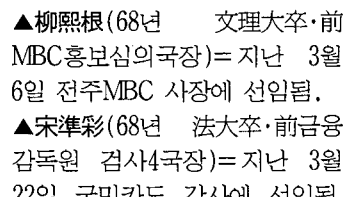
회의 이사장에 선출됨.

▲李浩一(68년 工大卒·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2월 27일 중부대 제3대 총장에 선임됨.

▲金東秘(68년 文理大卒·前국민기술금융 감사)= 지난 3월 21일 국민창업투자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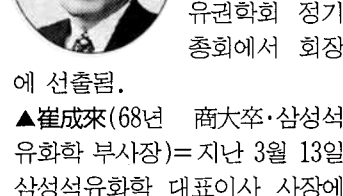
▲吳吉祿(68년 文理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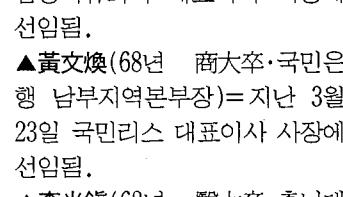
▲柳熙根(68년 文理大卒·前MBC홍보심의국장)= 지난 3월 6일 전주MBC 사장에 선임됨.



▲宋準彩(68년 法大卒·前금융감독원 감사4국장)= 지난 3월 22일 국민카드 감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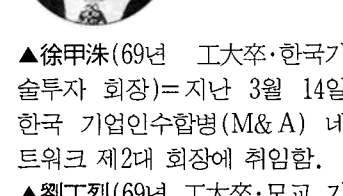
▲李廷勳(68년 法大卒·법무법인 태평양 공동대표 변호사)= 최근 열린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崔成來(68년 商大卒·삼성석유화학 부사장)= 지난 3월 13일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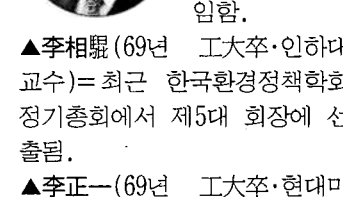
▲黃文煥(68년 商大卒·국민은행 남부지역본부장)= 지난 3월 23일 국민리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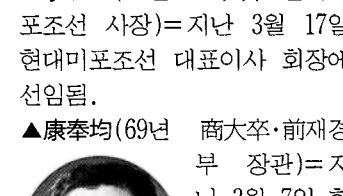
▲李光鎮(68년 醫大卒·충남대 교수)= 지난 3월 1일 충남대 총장에 임명됨.



▲徐甲洙(69년 工大卒·한국기술투자 회장)= 지난 3월 14일 한국 기업인수합병(M&A) 네트워크 제2대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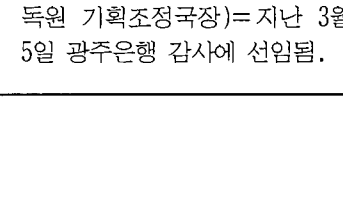
▲劉丁烈(69년 工大卒·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지난 3월 2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함.



▲李相驥(69년 工大卒·인하대 교수)= 최근 한국환경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됨.



▲李正一(69년 工大卒·현대미포조선 사장)= 지난 3월 17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康奉均(69년 商大卒·前재경부 장관)= 지난 3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공채 원장에 선임됨.

▲梁東赫(69년 商大卒·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지난 3월 5일 광주은행 감사에 선임됨.

편집주간식

冠岳大賞은 서울大人 모두의 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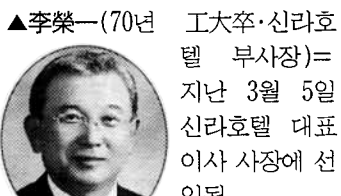
지난 정기총회에서 제3회 관악대상 수상자를 배출·표창한 바 있다. 참여부문에 서울공대동창회(회장 林光洙), 협력부문에 SK그룹 孫吉丞회장, 영광부문에 한국간연구재단 金丁龍이사장이 영광의 수상을 했다.

20만 서울大人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다. 차제에 관악대상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옮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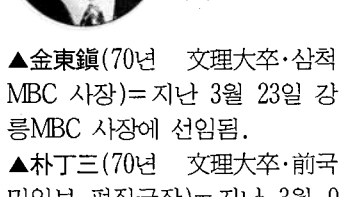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본 상을 시상함으로써 서울大人으로서의 귀감으로 삼고 단체결속과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冠岳大賞의 존재가치와 권위를 지켜가야 할 일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나, 연연세세 훌륭한 수상자가 계속 배출됨으로써 서울大人 모두에게 이 賞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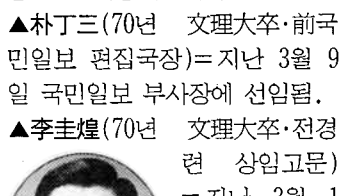
▲尹源培(69년 商大卒·숙명여대 경상대학장)= 지난 3월 24일 주택은행 사외이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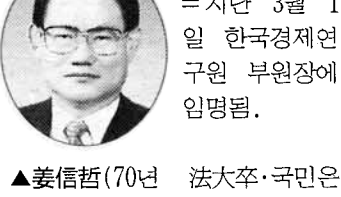
▲李榮一(70년 工大卒·신라호텔 부사장)= 지난 3월 5일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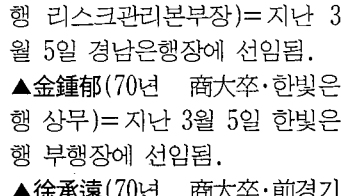
▲金東鎭(70년 文理大卒·삼척MBC 사장)= 지난 3월 23일 강릉MBC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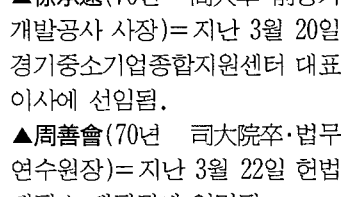
▲朴丁三(70년 文理大卒·前국민일보 편집국장)= 지난 3월 9일 국민일보 부사장에 선임됨.



▲李圭煌(70년 文理大卒·전경련 상임고문)= 지난 3월 1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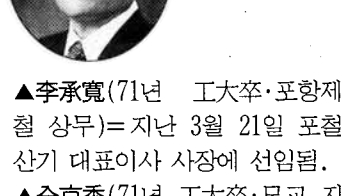
▲姜信哲(70년 法大卒·국민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지난 3월 5일 경남은행장에 선임됨.



▲金鍾郁(70년 商大卒·한빛은행 상무)= 지난 3월 5일 한빛은행 부행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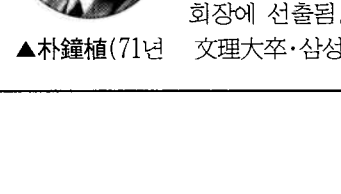
▲徐承遠(70년 商大卒·前경기개발공사 사장)= 지난 3월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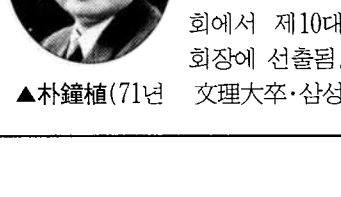
▲周善會(70년 司大院卒·법무연수원장)= 지난 3월 2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됨.



▲張相鉉(70년 行大院卒·온세통신 사장)= 지난 3월 16일 온세통신 상임고문에 추대됨.



▲李承寬(71년 工大卒·포항제철 상무)= 지난 3월 21일 포철산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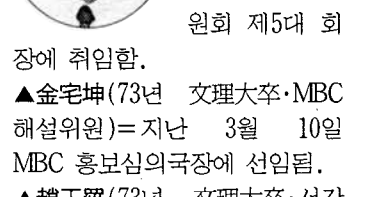
▲全京秀(71년 工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최근 대한교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출됨.

▲朴鐘植(71년 文理大卒·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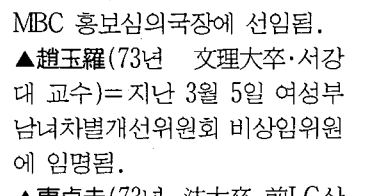
지구환경연구소장)= 지난 3월 5일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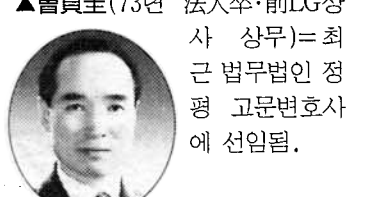
▲宋仁誠(71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 지난 3월 8일 모교 병원 불우환자돕기 모임인 함춘후원회 제5대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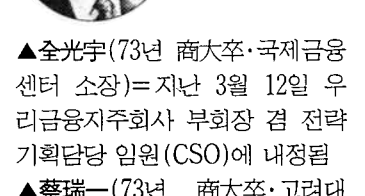
▲金宅坤(73년 文理大卒·MBC 해설위원)= 지난 3월 10일 MBC 홍보심의국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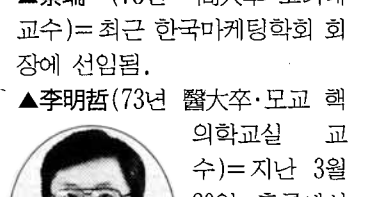
▲趙玉羅(73년 文理大卒·서강대 교수)= 지난 3월 5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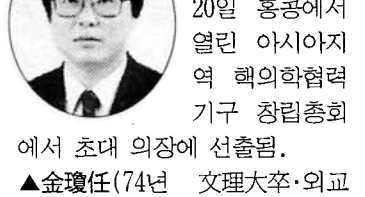
▲曹貞圭(73년 法大卒·前LG상사 상무)= 최근 법무법인 정평 고문변호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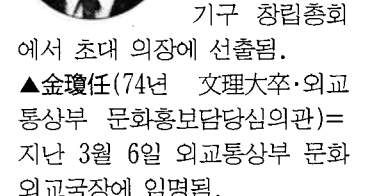
▲全光宇(73년 商大卒·국제금융센터 소장)= 지난 3월 12일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 겸 전략기획담당 임원(CSO)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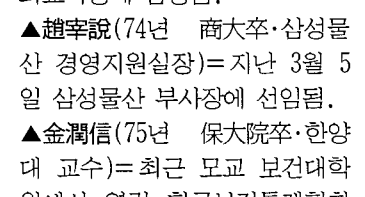
▲蔡瑞一(73년 商大卒·고려대 교수)= 최근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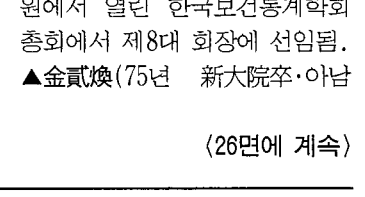
▲李明哲(73년 醫大卒·모교 핵의학교실 교수)= 지난 3월 20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기구 창립총회에서 초대 의장에 선출됨.



▲金瓊任(74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문화홍보담당심의관)= 지난 3월 6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에 임명됨.



▲趙宰說(74년 商大卒·삼성물산 경영지원실장)= 지난 3월 5일 삼성물산 부사장에 선임됨.



▲金潤信(75년 保大院卒·한양대 교수)= 최근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통계학회 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임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

(26면에 계속)

(25면에 이어)



▲金在洪(76년)

반도체 부사장)=최근 열린 제13차 한국광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 대



▲張忠基(76년)

행에 선임됨.

▲金在洪(76년) 社會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지난 3월 6일 경기대 통일안보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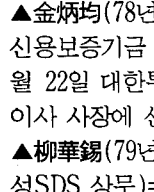
▲黃善雄(76년) 社會大卒·중앙대 교수)=최근 한국증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임됨.

▲權五坤(76년) 法大卒·대구고법 부장판사)=지난 3월 14일 국내 법조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선출됨.

▲金仁會(78년) 工大卒·건한 대표이사)=지난 3월 23일 엠플러 스택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趙榮柱(78년) 工大卒·한국통신 IMT-2000 법인설립추진위원장)=지난 3월 16일 출범한 KT아이컴 대표에 선임됨.

▲李圭用(78년) 法大卒·환경부 수질보전국장)=지난 3월 6일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에 임명됨.



▲金炳均(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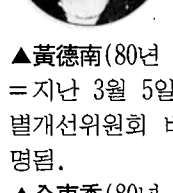
新大院卒·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지난 3월 22일 대한투자신탁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柳華錫(79년) 經營大卒·前삼성SDS 상무)=지난 3월 6일 한솔텔레콤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英蘭(79년) 法大卒·서울지법 부장판사)=지난 3월 5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

임위원회에 임명됐으며, 최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됨.

▲趙培淑(79년) 法大卒·변호사)=지난 3월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고문변호사에 선임됨.



▲黃德南(80년)

法大卒·변호사)=지난 3월 5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회에 임명됨.

▲全東秀(80년) 音大卒·음악평론가)=지난 3월 5일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 총감독에 취임함.



▲郭決鏞(80년)

環大院卒·환경부 환경정책국장)=지난 3월 6일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李在鳳(82년) 大學院卒·춘천교대 교수)=지난 3월 1일 춘천교대 총장에 임명됨.



▲柳津(83년)

人文大卒·풍산회장)=지난 3월 20일 경제협력기구(OECD)의 자문기구인 경제산업자문기구(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安哲秀(86년) 醫大卒·안철수연구소 대표)=지난 3월 24일 주택은행 사외이사에 선임됨.

▲李在鎔(92년) 人文大卒·하버드대 박사과정)=지난 3월 11일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상무보에 선임됨.

▲李重根(5기 AMP·부영 회장)



▲權泰文(28기)

AMP·(주)팔기 사장)=지난 3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에 선출됨.



▲鄭度彦(28기)

AMP·일양약품 사장)=지난 3월 6일 일양약품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李相榮(41기)

AMP·前한전 발전사업단장)=지난 3월 23일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에 선임됨.

▲柳星圭(44기) AMP·前동원BNP투신운용 대표)=지난 3월 5일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에 선임됨.

▲金伸卓(3기) AIP·前일진종합건설 사장)=지난 3월 19일 미주제강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張長淳(9기) AIP·코야넷텔레콤 회장)=최근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에 선임됨.



▲閔庚勳(25기)

ACAD·두산건설 부회장)=지난 3월 23일 두산중공업 부회장에 선임됨.

▲鄭珍皓(46기) ACAD·前동화청과 회장)=최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식품신문사를 설립,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함.

▲申昌賢(51기) ACAD·대통령환경비서관)=지난 3월 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文在寅(1기) EPHPM·前서울시 약사회장)=지난 3월 6일 대한약사회 부회장에 선임됨.

▲田永球(1기) EPHPM·서울시 약사회장)=지난 3월 6일 대한약사회 부회장에 선임됨.

▲李哲熙(4기) EPHPM·前부산시 약사회장)=지난 3월 6일 대한약사회 부회장에 선임됨.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27일 상공회의소에서 「韓·日語의 차등화법」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함.

▲李壽成(61년) 法大卒·前국무총리)=지난 3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화갑기념논문 봉정식을 가짐.

▲蔡載億(61년) 法大卒·한국생산성본부 회장)=지난 3월 22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금융연구원 丁海旺(69년 商大卒)원장을 초청, 「금융산업 개편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가짐.

▲李元魯(62년) 醫大卒·삼성병원심혈관센터 소장)=지난 3월 27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심혈관치료 학술대회에서 「급성관동맥증후군의 치료」를 주제로 특강함.

▲李德永(57년) 法大卒·세계인문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짐.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사회 포럼 회장)=지난 3월 29일 롯데호텔가네트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李源德(75년 商大卒)원장을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0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李鎬汪(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지난 3월 27일 학술원에서 데지이치코(市古貞次) 일본 학사원 원장과 학술교류 방안을 논의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3월 6~14일 갤러리 우덕에서 金瑞鳳·閔庚甲·朴錫煥·金芝烈·宋榮邦·李春基·鄭晔永·李烈模·朴淑姬·林頌義·鄭致煥·李澈周·金春玉·朱敏淑·劉仁洙·申明熹·朴沆律·韓愛奎·申璋煜등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33인의 사랑·봉사·나눔 소품전」을 가짐.

▲李爽熙(55년) 法大卒·李東寧 선생 유족회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13일 효창공원에서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石 李東寧선생 6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함.

▲崔鍾洙(56년) 文理大卒·한국케이블TV방송 협회장)=지난 3월 5일 하얏트호텔에서 제 6주년 「케이블 TV의 날」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가짐.

▲吳洪坪(57년) 法大卒·세종재단 이사장)=지난 3월 9~10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한 화해 진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독전문가회의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명예교수·고등교육학회 회장)=지난 3월 21일 이화여대에서 일본 사립대학 연맹 시찰단을 초청, 「일본 사립대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世中(57년) 法大卒·광화문포럼 회장)=지난 3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모교 趙東成(71년 商大卒)경영대학장을 초청, 「디자인 혁명」을 주제로 제12회 아침공론을 가짐.

▲李徽永(57년) 法大卒·세계인문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짐.



▲李仁浩(55년)

文理大入·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3월 16일 신라호텔에서 이스라엘의 반레어 예루살렘 연구소와 제2차 한·이스라엘 포럼을 개최함.

▲李澤求(59년) 農大卒·前신흥대 교수)=80년대 이후 공무원 채용 영어 시험 6백여 문제를 수집, 해설을 덧붙여 크라운출판사를 통해 발행함.

▲金明浩(59년) 美大卒·덕성여대 교수)=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제7회 개인전을 가짐.

▲皇甫漢(60년) 工大卒·한국통신 위성사업단장)=오는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70여 점의 유화작품으로 개인전을 가질 예정.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27일 상공회의소에서 「韓·日語의 차등화법」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함.

▲李壽成(61년) 法大卒·前국무총리)=지난 3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화갑기념논문 봉정식을 가짐.

▲蔡載億(61년) 法大卒·한국생산성본부 회장)=지난 3월 22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금융연구원 丁海旺(69년 商大卒)원장을 초청, 「금융산업 개편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가짐.

▲李元魯(62년) 醫大卒·삼성병원심혈관센터 소장)=지난 3월 27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심혈관치료 학술대회에서 「급성관동맥증후군의 치료」를 주제로 특강함.

▲李德永(57년) 法大卒·세계인문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짐.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사회 포럼 회장)=지난 3월 29일 롯데호텔가네트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李源德(75년 商大卒)원장을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0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李鎬汪(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지난 3월 27일 학술원에서 데지이치코(市古貞次) 일본 학사원 원장과 학술교류 방안을 논의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3월 6~14일 갤러리 우덕에서 金瑞鳳·閔庚甲·朴錫煥·金芝烈·宋榮邦·李春基·鄭晔永·李烈模·朴淑姬·林頌義·鄭致煥·李澈周·金春玉·朱敏淑·劉仁洙·申明熹·朴沆律·韓愛奎·申璋煜등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33인의 사랑·봉사·나눔 소품전」을 가짐.

▲李爽熙(55년) 法大卒·李東寧 선생 유족회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13일 효창공원에서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石 李東寧선생 6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함.

▲崔鍾洙(56년) 文理大卒·한국케이블TV방송 협회장)=지난 3월 5일 하얏트호텔에서 제 6주년 「케이블 TV의 날」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가짐.

▲吳洪坪(57년) 法大卒·세종재단 이사장)=지난 3월 9~10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한 화해 진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독전문가회의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명예교수·고등교육학회 회장)=지난 3월 21일 이화여대에서 일본 사립대학 연맹 시찰단을 초청, 「일본 사립대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世中(57년) 法大卒·광화문포럼 회장)=지난 3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모교 趙東成(71년 商大卒)경영대학장을 초청, 「디자인 혁명」을 주제로 제12회 아침공론을 가짐.

▲李徽永(57년) 法大卒·세계인문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짐.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사회 포럼 회장)=지난 3월 29일 롯데호텔가네트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李源德(75년 商大卒)원장을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0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李鎬汪(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지난 3월 27일 학술원에서 데지이치코(市古貞次) 일본 학사원 원장과 학술교류 방안을 논의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3월 6~14일 갤러리 우덕에서 金瑞鳳·閔庚甲·朴錫煥·金芝烈·宋榮邦·李春基·鄭晔永·李烈模·朴淑姬·林頌義·鄭致煥·李澈周·金春玉·朱敏淑·劉仁洙·申明熹·朴沆律·韓愛奎·申璋煜등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33인의 사랑·봉사·나눔 소품전」을 가짐.

▲李爽熙(55년) 法大卒·李東寧 선생 유족회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13일 효창공원에서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石 李東寧선생 61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함.

▲崔鍾洙(56년) 文理大卒·한국케이블TV방송 협회장)=지난 3월 5일 하얏트호텔에서 제 6주년 「케이블 TV의 날」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가짐.

▲吳洪坪(57년) 法大卒·세종재단 이사장)=지난 3월 9~10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한 화해 진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독전문가회의를 가짐.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명예교수·고등교육학회 회장)=지난 3월 21일 이화여대에서 일본 사립대학 연맹 시찰단을 초청, 「일본 사립대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世中(57년) 法大卒·광화문포럼 회장)=지난 3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연회장에서 모교 趙東成(71년 商大卒)경영대학장을 초청, 「디자인 혁명」을 주제로 제12회 아침공론을 가짐.

▲李徽永(57년) 法大卒·세계인문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짐.

“동문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강릉보육원 재정적 후원 절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다.

현재 강릉에서 강릉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宋明翼(48년 藝大卒)·崔吉順(56년 師大卒)동문 내외는 이러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서울대가족의 한 일원이다.

宋동문 내외가 46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강릉보육원은 3백여 명의 전쟁고아를 돌보는 것을 시작하여 그 동안 수천

명의 어린 새싹들을 훌륭히 길러 냈다. 하지만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아, 소년소년가장, 결혼가정아동 등 49명만을 데리고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동문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강릉보육원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자그마한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강릉보육원 연락처: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80-1, 전화: 033-652-7263) (表)

행사·출간

▲金相廈(49년)

文理大卒·삼양사 회장·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이사장·本會 顧問)=지난 3월 21일 대한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

(27면에 계속)

(26면에 이어)

▲安武赫(62년 大學院卒·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지난 3월 2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金鍾仁

前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초청,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鮮于仲皓(63년 工大卒·명지대 총장)=지난 3월 14~20일 종로구 관훈동 인사갤러리에서 「물있는 풍경」을 주제로 사진전을 가짐.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3월 21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사업 관리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가짐.

▲金德龍(61년 文理大入·국회의원·尹奉吉의사 기념사업회장)=지난 3월 20일 양재동尹奉吉의사 기념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관해 논의함.

▲成裕普(65년 文理大卒·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지난 3월 1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동아투위 26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를 가짐.

▲朱光逸(65년 法大卒·국민고충처리위원장)=지난 3월 9일 위원회 대강당에서 고충민원 체험수기집 「아픔과 보람도 국민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가짐.

▲金昌富(65년 商大卒·한국신용정보 대표)=지난 3월 22일 홍익대 세무대학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신용평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12일 상의클럽에서 辛國煥(63년 法大卒) 前산자부 장관을 초청, 「2001년 산업 무역 자원 정책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짐.

▲金明珍(65년 音大卒·한국피아노무오협회 부회장)=지난 3월 6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金正秀(65년 音大卒·한국클라리넷협회장), 朴倫秀(67년 音大入·추계예대 교수), 趙倫姬(79년 音大卒·한양대 강사), 柳惠淑(82년 音大卒·모교 강사) 동문 등과 함께 소리울양상을

제18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崔德一(65년 藥大卒·국립환경연구원장)=지난 3월 2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먹는 물과 건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3월 21일 신라호텔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4개국 대사를 초청, 국내외 환경산업기술과 정보교환 등 환경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챔버앙상블 음악감독)=지난 4월 1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鄭孝鍊(88년 音大

卒·세종대 교수)동문 등과 함께 서울챔버앙상블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崔柄憲(67년 文理大卒·모교 국사학과 교수)=지난 3월 19일 서울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네오내셔널리즘의 동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짐.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지난 3월 7일 인사관리 회관에서 「직무분석 실무」에 관한 강

좌를 실시함.

▲趙英男(64년 音大入·가수)=지난 3월 21~22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가수생활 35주년 기념 「2001 조영남

빅콘서트」를 개최함.

▲尹桂燮(68년 商大卒·모교 경영학과 교수·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지난 3월 21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국

은행 全哲煥(61년 商大卒)총재를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韓利憲(68년 商大卒·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지난 3월 1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林鍾律(67년 法大卒)위원장을 초청, 「구조조정하의 노사문제,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짐.

▲朴容晔(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3월 20일 삼성 SDS, 이지케어택 등과 국내 의료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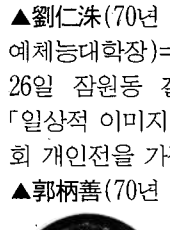
▲黃聖燁(69년 音大卒·호서대



교수)=지난 3월 1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스카를라티, 베토벤,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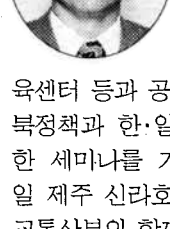
▲李廷植(70년 工大卒·국토연구원장·環大院 同窓會長)=지난 3월 26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백두대간 관리 범위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짐.



▲劉仁洙(70년 美大卒·상명대 예체능대학장)=지난 3월 15~26일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일상적 이미지」 시리즈로 제10회 개인전을 가짐.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3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교육의 현실과 조기 유학의 명암」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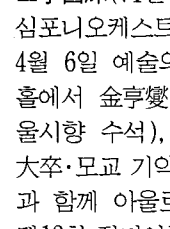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지난 3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비확산정책 교육센터 등과 공동으로 한·미 대북정책과 한·일 통상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으며, 20~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모교, 외교통상부와 함께 정보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주제로 제6차 APEC 투자심포지엄을 가짐.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전장학회 이사장)=지난 3월 15일 중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함.



▲林玄鎭(7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한국NGO학회 대표)=지난 3월 24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회의실에서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를 주제로 발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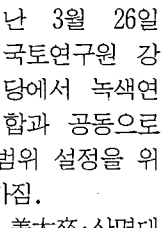
▲李昌洙(71년 音大卒·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난 4월 6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亨燮(76년 音大卒·서울시향 수석), 金泳律(80년 音大卒·모교 기악과 교수)동문 등과 함께 아를로스 목관5중주단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李承晚박사 기념사업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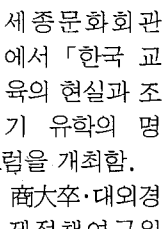
李承晚 前대통령 탄신 126회 추모행사를 가짐.

▲金龍文(72년 文理大卒·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지난 3월 16일 일본사회사업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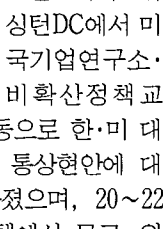


▲李鍾贊(72년 行大院卒·前국가정보원장)=지난 3월 22일 순천대 행정대학원 개강 기념으로 「세계화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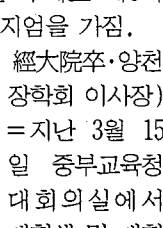
▲金寓龍(73년 新大院卒·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장)=지난 3월 1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21세기 광고산업의 새 지평」을 주제로 제1회 미디어와 정책 포럼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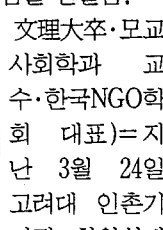
▲李喆玉(74년 保大院卒·한국청소년연맹 총재)=지난 3월 17일 연맹 강당에서 창립 20주년 행사를 갖고 유공자 등을 표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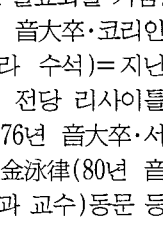
▲申洵雨(74년 行大院卒·산림청장)=최근 경원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변동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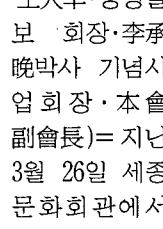
▲李長熙(75년 大學院卒·한국외대 교수·대한국제법학회 회장)=지난 3월 24일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국제법의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국제법 세미나를 가짐.



▲李圭煥(77년 環大院卒·중앙대 교수)=지난 3월 24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高興吉국회의원을 초청, 「역대 정권의 언론관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李大熙(78년 農大卒·광운대 교수·서울행정학회 회장)=지난 3월 10일 조선대 서석홀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쟁점과 평가」를 주제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가짐.



▲金敏基(78년 美大卒·극단 학전 대표)=지난 3월 15~16일 대학로 학전소극장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지하철 1호선」 공연을 가짐.

▲皮虎英(83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3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林鍾弼(84년 音大卒·피아니스트)교수와 듀오로 베토벤, 스트라빈스키, 차이코프스키, 릴리블랑제 등의 작품을 선보임.

▲李駿星(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4월 1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베토벤, 바르토크, 윤이상, 라흐마니노프 등

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金在哲(4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3월 2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무역업계의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具鍾泰(45기 AMP·한국세무사회장·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회장)=지난 3월 19~21일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회(AO-TCA) 업무를 협의함.

▲尹義權(49기 AMP·서울신용평가정보 회장)=지난 3월 16일 주성대학 세미나실에서 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앞당겨라」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함.

▲孫日祚(29기 ACAD·기능대학 이사장)=지난 3월 19일 팔래스호텔에서 전국 22개 기능대학 학장회의를 가짐.

▲李 沁(32기 ACAD·한국잡지협회 회장)=지난 3월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월간조선 趙甲濟대표이사를 초청, 「잡지를 만드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짐.

(정리=安興燮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민성삼(98년 人文大卒)군·이은화 양=4월 21일 14시.

*전선덕(92년 藥大卒)군·서은주 양=4월 22일 11시.

*전성진(95년 工大卒)군·김문정 양=4월 22일 12시 30분.

*이인수(79년 工大卒)군·김미경 양=4월 28일 14시.

*장재혁(保大院 在學)군·안세정 양=5월 5일 12시 30분.

*안지수(00년 工大卒)군·남은정 양=5월 12일 14시.

*윤재웅(96년 自然大卒)군·김보경 양=5월 12일 15시 30분.

*유재홍(00년 工大卒)군·박수진 양=5월 13일 12시 30분.

*이영석(96년 工大卒)군·류정미 양=5월 13일 14시.

*차용욱(97년 自然大卒)군·김선영 양=5월 13일 15시 30분.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을 이용하시는 신랑·신부에게는 사이판 또는 제주도 호텔 무료숙박권을 드립니다.



新刊

■ 종이조형활동의 교육적·심리적 효과

—金在恩 著



이화여대 金在恩 (54년 師大卒·창의성 연구소장) 명예 교수가 종이접기 활동을 중심으로 종이접기 이론서를 펴냈다.

종이접기가 과연 어떤 교육적, 심리적 효과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종이접기 교육의 원리 및 종이접기와 디자인의 만남, 창의성을 키워주는 종이접기를 통해 살았으며, 조형능력을 높이는 지도 방법과 종이접기의 심리치료 효과, 놀이로서의 종이접기를 소개했다. (창지사판·값8,000원)

■ 나는 告發者이고

싶었다

—孫一根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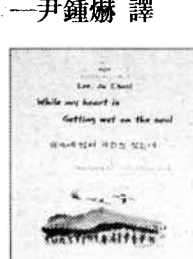
한국일보 孫一根 (51년 法大入·본회 상임 부회장) 상임 고문이 1977년 출간한 단편집 「獨白의 餘韻」 이후의 글들을 모아 엮은 에세이.

언론인으로서 45년의 외길을 걸어온 孫동문의 인생역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화보를 비롯하여 「월남 종전의 특종비화」, 「의사당의 결투」, 「기자의 길」, 「녹차 향기에 젖어」, 「드골 같은 품모의 대기자」, 「가흔이란 여의봉 같은 것」 등 정치, 시사, 문화, 평론부터 수필, 인물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리한 60여 편의 글을 수록했다. (한국문원판·값8,000원)

■ While my heart is Getting wet on the soul (靈魂에 젖는데)

—尹鍾燮 譯



한국공간시인협회 尹鍾燮 (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 회장이 국제시인협회

종신회원인 李柱澈씨의 詩 44편을 영어로 번역했다. (호맥판·값8,000원)

■ 出版雜誌研究

—출판문화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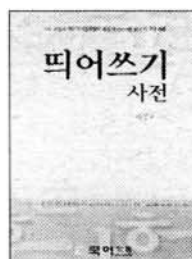


출판문화학회 (회장 全泳杓·60년 文理大卒·신구대학 교수)가 최근 학회보 제8호를 발행했다.

「문화의 21세기 위한 출판법제 연구」, 「광고 메시지 제시에 따른 수용자의 정보처리과정 연구」, 「베스트셀러 독자들의 주관성 연구」, 「디지털 시대 잡지산업의 발전방향」, 「북한의 출판보도체제와 그 내용 연구」, 「TV프로그램의 중국 진출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출판문화학회판·값10,000원)

■ 띄어쓰기 사전

—李成九 編著



동남보건대학 李成九 (62년 師大卒·교육대학원 동창회장) 학장이 1995년 에 펴낸 「띄어쓰기 실무사전」을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 방식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놓았다.

종전에 띄어 쓰던 「고속도로」, 「고등 학교」는 「고속도로」, 「고등학교」로 붙여 쓰며, 「마음놓고」, 「수다떨다」 등 한 단어로 붙여 써 오던 것은 「마음 놓고」, 「수다 떨다」 등으로 띄어 쓰게 됐다고 소개한다. (국어닷컴판·값18,000원)

■ 촌스키의 정치사상과

한국언론

—安瑛燮 著



명지대 법정대학 安瑛燮 (76년 大學院卒) 교수가 촌스키의 사상을 연구한 언론학분야 사회과학서를 펴냈다.

The New York Times가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이라고 평한 언어학자 출신의 사회사상가인 촌스키 (美MIT대 교수)의 정치사상개요를 제1부에서 소개했고, 제2부에서는 그의 언론사상에 비추어 한국언론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법문사판·값15,000원)

(정리=安瑛燮기자)

동문의 소리

눈오면 생각나는 독일의 친절한 역무원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 추운데다 눈이 많이 내렸다. TV에서 서울이나 강원도에 내린 눈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31년 전 독일 바이에른주 코헬역의 친절한 역무원 아저씨 생각이 떠올랐다.

1970년 처음 독일로 유학을 가 남부 독일 알프스산중의 Walchensee 호숫가 부근 어학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다. 뮌헨의 국제학생축제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하게되어 연주를 한 후 다음날 수업 때문에 서둘러 돌아오게 되었다. 코헬역에서 다시 어학학교까지의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지막 버스가 떠

난 후였다.

사방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나는 어쩔 줄 몰라 역으로 들어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역무원은 지금은 택시도 없으니 밤 12시가 넘으면 자신의 업무 시간이 끝나므로 기다리면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코헬에서 발헨제까지는 자동차로 30분 이상 험한 산길을 가야 했는데, 그 역무원은 눈 온 밤길을 고생해서 나를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보답으로 돈을 주려고 했더니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다시 밤길을 되돌아갔다.

그후 다시는 이 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항상 따뜻한 추억으로



尹眞英 (68년 音大卒)
대구가톨릭대 교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요즘 우리 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친절했는지 눈오는 겨울밤 기꺼이 봉사해준 역무원의 기억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야구에서 1번 타자와 4번 타자의 차이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이 잘되어야 하며, 끝으로 만든 제품이 잘 팔려야 하는, 즉 훌륭한 마케팅 활동으로 마무리지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술·생산·마케팅의 삼위일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야구경기를 예로 들면 1번 타자는 그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안타를 만들어 팀 공격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으로 친다면 기술개발에 해당되는 것이다.

1번 타자가 어렵사리 안타를 치고 나가면 그 다음 2번 타자는 소위 세이프티 번트를 쳐 주자를 확실하게 2루로 진루시켜야 한다.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관찰하면 2번 타자는 착실하고

차질 없는 생산공정으로 볼 수 있고, 4번 타자는 바로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야구에서는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점수를 넣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이므로 점수 넣는 것이 바로 야구의 목적인 것이다. 한편 기업에서는 판매가 가장 중요하고, 팔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부딪쳐 봐야 단맛·쓴맛을 경험하듯, 기업도 좋은 아이디어·기술력을 가지고 출발하여 제품을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수출과 내수를 포함하여)에게 팔아보아야 수요자의 욕구, 개성, 수요패턴의 새로운 변화, A/S의 중요성, 고객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쟁사와 경쟁제품의 새로운 시도,



許範道 (76년 行大院卒)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디자인의 변화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값진 체험과 경이로운 눈뜸이 다시 연구실로 환류(Feed back)되어 새로운 연구개발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인은, 오늘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내일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자. 여기에 우리의 경쟁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우리의 살길이 있는 것이다.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관악에서의 대학 1년을 지낸 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각나는 마음의 빛이 하나 있다.

서울 땅을 난생 처음 밟아 본 내가 모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생활한 곳이 관악사 마동 209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 룸메이트로는 나와 같은 새내기인 광주 출신 李載演동문과 부산 출신 趙源俊동문 그리고 청주 출신의 원자핵공학과 李龍熙형이었다.

특히 龍熙형은 처음 우리가 대면한 날부터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서로 많이 친하게 지냈고, 관악사 축제 때는 4명이 함께 중창을 했던 기억도 난다. 이렇듯 대학 새내기 시절, 좋은 분을 만난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행운을

지키지 못했다.

대학 생활 1년이 거의 다 갈 무렵, 농대를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 번쯤은 있을 법한 학교 생활의 회의 때문에 형에게 나도 모르게 노처녀의 히스테리와도 같은 짜증을 낸 적이 있었다. 필자 같으면 화가 나서 『이놈 보라』하고 한 대 때려 주었을 법도 한데, 형은 침착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었다. 그 일은 사소한 것을 트집잡은 나의 일방적인 잘못이었고, 형에게 그 일에 대해 사과하지 못한 채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교생활을 할 때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가끔씩 그 일이 떠올라 마음의 짐이 되어버렸다.

흔히 서울대생들은 남에게 사



崔元錫 (86년 農大卒)
(주)바이오엔텍 사장

과를 잘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사회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이 사과할 일이 있었지만 제대로 사과해 본 기억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때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좀더 쉽게 사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 2001년 1월 18일 ~ 2001년 3월 26일 · 一般 : 2001년 1월 18일 ~ 2001년 3월 26일〉

관 약 회

▲이 사 鄭八道=30만원

상 임 이 사

▲禹炅仙 SGS동창회장=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허석범⁷⁶ (주)쌍용

◇工科大學

▲박경호⁷² 신우섬유 대표
▲박인균⁵¹ 범창양행 사장
▲박창순⁶⁸ 감신산업(주) 대표
▲우지형⁴²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근⁵⁷ (주)우림종합건축사
▲이주범⁵⁶ 쌍용그룹 상임고문
▲허명렬⁵⁹ 덕산엔지니어링
▲허진규⁶³ 일진그룹 회장

◇農科大學

▲고광출⁵⁸ 모교 명예교수
▲고홍철⁶¹
▲이치섭⁶²

◇文理科大學

▲김성열⁴⁸ 前동아일보 고문
▲송한호⁶⁰ 민족통일중앙協
▲현영원⁵⁴ 현대상선 회장

◇美術大學

▲신현장⁶⁹ 국제디자인研 원장

◇法科大學

▲김용구⁷¹ 농협중앙회
▲김태현⁵⁰ 변호사
▲김흥한⁴⁹ 변호사
▲목요상⁶¹ 국회의원
▲문홍주⁴⁰ 미국헌법研 이사장
▲안보영⁷² 에스비티 상무
▲윤순한⁷⁶ SK텔레콤 상무
▲임대규⁷⁸ 변호사

◇師範大學

▲정완호⁶³ 한국교원대 총장
▲조용복⁶⁰ 서울사대부중 교장
▲허판예⁶⁰ 前공지중 교장

◇商科大學

▲소진관⁷⁴ 쌍용자동차 사장

◇獸醫科大學

▲박종영⁶⁵ 중앙케미칼 부사장
▲이기주⁶⁷ 조흥건설산업

◇醫科大學

▲강조웅⁶⁸ 서울정형외과원장
▲김형묵⁶³ 고려대 교수
▲박희백⁵⁷ 정형외과의원장
▲방성호⁷² 동인의원장
▲양정현⁷³ 삼성서울병원
▲이계평⁶⁵ 이외과의원장
▲이기상⁷⁹ 새서울내과의원장

▲이대규⁵³ 민경산업(주) 대표
▲이명덕⁷³ 강남성모병원
▲이영호⁴⁵ 이비인후과의원장
▲최규완⁶¹ 삼성의료원장
▲한기호⁶¹ 한외과의원장
▲홍성태⁷⁹ 모교 교수
▲홍영표⁵⁸ 대한결핵협회장

◇齒科大學

▲김용준⁵⁸ 김용준치과원장
▲민병덕⁷⁰ 청산치과원장
▲박행운⁶⁰ 박치과원장
▲이준섭⁵⁸ 이치과원장
▲조영수⁸² 백상치과원장

◇大學院

▲백 철⁷⁸ 동양라이닝 사장
▲안무혁⁶² 한국발전研 이사장

◇經營大學院

▲배영한⁷²

◇司法大學院

▲오복동⁶⁴ 변호사
▲이기영⁶⁹ 변호사

◇新聞大學院

▲이명화⁶⁹ 덕성무역(주) 회장

◇行政大學院

▲정경모⁶⁷ 해외선박(주) 회장

일 반

◇人文大學

▲방시혁⁶⁷ ▲윤태근⁹² ▲이 건⁹⁶

◇社會科學大學

▲권헌서⁷⁸ ▲김기령⁷⁹ ▲김연주⁹⁷
▲김창열⁷⁷ ▲박요한⁶⁷ ▲이지수⁸⁷

◇自然科學大學

▲김규중⁷⁶ ▲박정환⁶⁷

◇家政大學

▲이화숙⁶¹ ▲한선희⁷⁶

◇看護大學

▲이성희⁹⁰ ▲정현명⁹² ▲주세진⁸²

◇經營大學

▲배택영⁹¹ ▲손대영⁸¹ ▲정원구⁹⁵
▲최병호⁸⁷

◇工科大學

▲고광빈⁶⁶ ▲권혁일⁷² ▲권혁준⁵³
▲김 훈⁶⁴ ▲김경현⁹⁰ ▲김광은⁶⁷
▲김덕규⁹³ ▲김란수⁸⁹ ▲김상원⁹²
▲김석일⁷⁵ ▲김석주⁷⁸ ▲김성두⁷⁷
▲김성수⁷⁹ ▲김세종⁶⁴ ▲김영섭⁷⁶
▲김영진⁵⁷ ▲김용익⁵⁴ ▲김장수⁹³
▲김종원⁷⁸ ▲김태호⁷² ▲김홍국⁸⁸
▲마상덕⁷³ ▲문인수⁷² ▲박노상⁶¹
▲박승균⁶⁷ ▲박양배⁷⁰ ▲박정호⁸²
▲박종렬⁷⁸ ▲박희수⁵⁸ ▲방한정⁷⁴
▲백 훈⁹⁰ ▲변동필⁷⁹ ▲서동준⁹⁶
▲서태석⁸⁰ ▲송기태⁹⁴ ▲송정순⁸⁵

▲신창용⁹⁶ ▲신현섭⁷⁷ ▲안 인⁷²
▲안형호⁸⁰ ▲오승환⁸⁷ ▲윤인선⁷⁹
▲이경수⁹⁶ ▲이규원⁶⁸ ▲이단형⁷¹
▲이상춘⁷² ▲이성민⁷⁵ ▲이순병⁷²
▲이영재⁷¹ ▲이용수⁷⁹ ▲이원홍⁶¹
▲이응렬⁷⁴ ▲이재섭⁸⁵ ▲이정우⁸²
▲이종철⁸¹ ▲이희영⁹³ ▲이희웅⁷⁷
▲전준수⁶⁵ ▲정대중⁸⁸ ▲정시영⁸²
▲정철진⁸¹ ▲조진호⁵⁸ ▲최상현⁸¹
▲최홍렬⁸⁹ ▲하창한⁶⁷ ▲한상훈⁸⁸
▲현범수⁷⁹ ▲현상균⁸¹ ▲홍성일⁵⁸

◇農科大學

▲곽소수⁶⁶ ▲구기완⁹⁶ ▲권 철⁶⁵
▲김병우⁸⁵ ▲김응겸⁶³ ▲김재권⁶²
▲김정화⁶⁴ ▲박관식⁵⁸ ▲신재익⁶⁴
▲오훈일⁷¹ ▲왕인근⁵⁵ ▲유광일⁷³
▲윤경섭⁷³ ▲이남식⁷⁸ ▲이지원⁸⁷
▲인만진⁸⁵ ▲장경태⁶⁸ ▲조범호⁶⁴
▲조병찬⁷³ ▲홍순억⁴⁸

◇文理科大學

▲고혜령⁶⁸ ▲김기태⁶⁸ ▲김덕렬⁶⁵
▲김리나⁶⁴ ▲김상준⁶⁷ ▲김영호⁴⁹
▲김장환⁶⁶ ▲김탁진⁶⁴ ▲김해욱⁶⁴
▲박용수⁶² ▲안승원⁷⁵ ▲안표순⁶⁶
▲오현우⁵⁰ ▲이규덕⁶¹ ▲이규환⁷⁰
▲이자승⁶⁴ ▲이정자⁵⁰ ▲이진희⁵⁸
▲이필숙⁶⁰ ▲장화자⁵⁵ ▲조요한⁵³
▲채치범⁶³

◇美術大學

▲강희덕⁷¹ ▲김성천⁸⁶ ▲김익수⁶³
▲김학채⁸⁷ ▲박석환⁵⁷ ▲백영자⁶⁸
▲심정수⁶⁷ ▲윤석원⁶⁹ ▲이재근⁹¹
▲최인숙⁷⁹

◇法科大學

▲강 훈⁷⁶ ▲곽창욱⁶² ▲구자순⁵⁷
▲김현수⁸⁴ ▲김환수⁶⁶ ▲남계호⁵⁸
▲박종욱⁶⁷ ▲박한채⁷⁰ ▲변선중⁸²
▲신동승⁸³ ▲양정석⁶¹ ▲오동일⁶⁹
▲오승진⁸⁷ ▲윤성현⁶⁴ ▲이규용⁷⁸
▲이동식⁶¹ ▲이선희⁸⁸ ▲이영진⁷¹
▲함철훈⁷³

◇師範大學

▲고미형⁷⁹ ▲권도경⁸⁶ ▲김학전⁶³
▲김혜경⁷⁴ ▲노명완⁷³ ▲박인기⁷²
▲변영희⁷⁰ ▲서계현⁸² ▲성 현⁷³
▲신의범⁴¹ ▲신재식⁶⁰ ▲신철중⁵⁴
▲안지연⁹¹ ▲이상규⁶⁰ ▲이상희⁹⁶
▲이창환⁶⁶ ▲임복희⁴¹ ▲정은실⁷⁴
▲정재현⁶⁰ ▲조정희⁶³ ▲최원규⁶³
▲최희남⁶⁷

◇商科大學

▲강남언⁶² ▲곽윤광⁶⁴ ▲김승호⁵⁷
▲박순화⁶⁹ ▲박종민⁷² ▲안홍지⁶⁵
▲유재현⁷¹ ▲전영기⁶⁹ ▲주원식⁶⁴
▲허남수⁶⁶

◇獸醫科大學

▲나병무⁶⁴ ▲이덕주⁶⁴ ▲정동혁⁸³
▲최현석⁹⁵

◇藥學大學

▲백승엽⁹⁶ ▲심창구⁷¹ ▲윤혜숙⁶⁶

◇音樂大學

▲김현숙⁸³ ▲신영자⁶⁷ ▲이근택⁶⁸
▲이상룡⁶⁶

◇醫科大學

▲강용홍⁹⁰ ▲김법성⁸⁴ ▲나명훈⁸³
▲남상민⁸⁹ ▲박순일⁵⁷ ▲박중수⁷⁶
▲서장인⁸⁶ ▲송만성⁸⁶ ▲오세오⁸⁵
▲이 영⁶⁸ ▲이규훈⁸⁹ ▲정해관⁸²
▲조명찬⁸³ ▲주인욱⁷⁸ ▲최경효⁸⁹
▲최용석⁸⁸

◇齒科大學

▲구자선⁶² ▲김진수⁸⁴ ▲선우일권⁶⁴
▲송병욱⁶⁵ ▲신일영⁸³ ▲양재영⁷⁶
▲윤종구⁵⁸ ▲이만희⁸⁹ ▲이병현⁸⁷
▲이혜자⁸³

◇大學院

▲손명환⁸⁰ ▲이동호⁷¹ ▲어재구⁶⁶
▲정기한⁸¹ ▲한대성⁸⁸

◇保健大學院

▲신형균⁷⁰ ▲윤인희⁸²

◇環境大學院

▲민병욱⁸¹ ▲박종소⁸⁶

◇行政大學院

▲소중영⁶⁴ ▲정수부⁷⁷

◇최고경영자과정

▲강원채¹ ▲김동엽⁶ ▲김봉제¹⁹
▲박영서¹⁴ ▲안정호⁴³ ▲오희택¹

▲유재만¹⁷ ▲윤종호⁴⁸ ▲이용만⁴⁸
▲이종규²⁰ ▲이춘호⁴⁶ ▲진홍균⁹

◇최고산업전략과정

▲강용석²³ ▲구교근²⁰ ▲김세종⁴
▲김형진²¹ ▲박승욱²¹ ▲이부락²⁴
▲이상철¹³ ▲한순모²⁴ ▲한원철²³

◇국가정책과정

▲김홍원³⁵ ▲손호인⁶

◇고급금융과정

▲강세환¹⁴ ▲송춘석⁶ ▲이계용²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정창수³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원길¹

◇가정간호수습과정

▲박희심¹

◇보건의료정책과정

▲김복희¹ ▲박원희⁴ ▲이정선⁵

지부분담금

◇스웨덴지부 : 243,760원

합계 : 10,063,760원

통계 : 19,723,760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2001년 2월 1일 ~ 2월 28일〉

개 인

◇人文大學

▲김진형⁹⁶ ▲한준식⁹⁷

◇社會科學大學

▲강병철⁹⁰ ▲김영욱⁹⁰ ▲김환준⁸⁸
▲허준혁⁹⁹

◇家政大學

▲김신향⁸⁷

◇經營大學

▲이문화⁸⁶ ▲이익찬⁹⁰

◇工科大學

▲김도현⁹⁶ ▲김성기⁸⁴ ▲김일환⁹⁴
▲민상원⁹⁹ ▲박철규⁹¹ ▲최재영⁹⁰

◇農科大學

▲임신재⁹³ ▲홍현주⁷⁷ ▲황현부⁹⁷

◇文理科大學

▲정용재⁵⁰

◇師範大學

▲권순석⁶⁹ ▲오기세⁸⁰

◇法科大學

▲백덕렬⁷¹ ▲양인석⁶⁰

◇藥學大學

▲김지만⁹⁹

◇音樂大學

▲박형준⁹⁰ ▲최은미⁸¹

◇醫科大學

▲안상훈⁹⁴

◇保健大學院

▲최동희⁹⁹

◇環境大學院

▲김지엽⁹⁷

◇보건의료정책과정

▲윤석모⁶